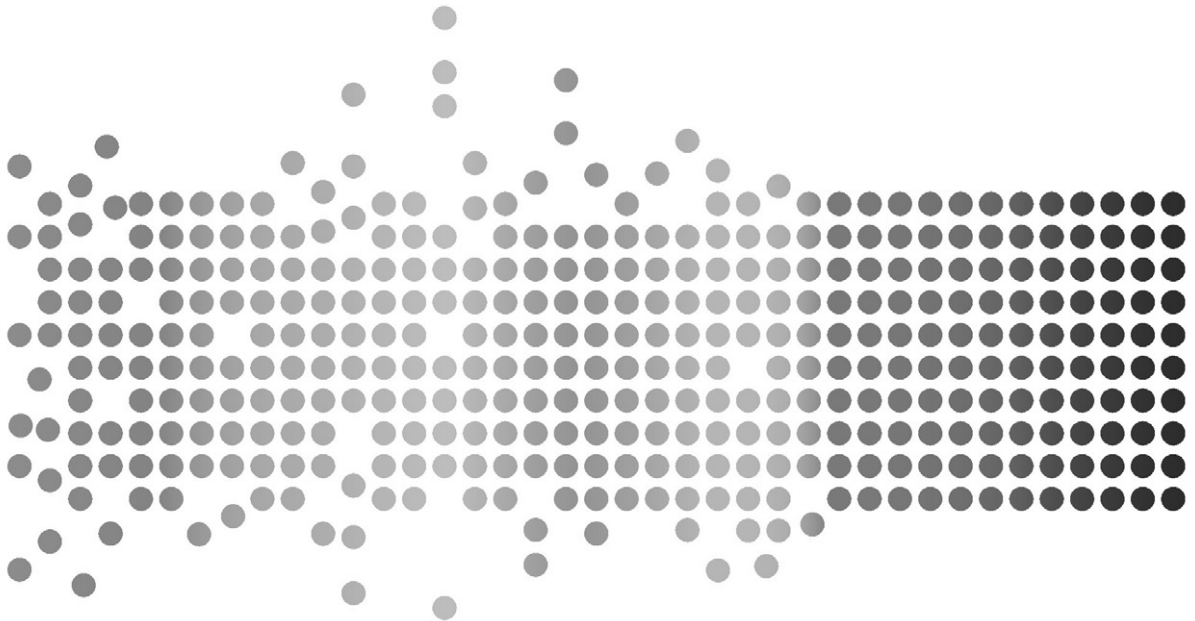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A Profil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Older Persons and
Economic Valuation

정경희 · 이윤경 · 윤지은



연구보고서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정경희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98-5 93330



머리말

노인이 노동시장 내외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생산성 개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노년학 분야에서 이러한 기존의 생산성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을 이룬 것은 생산적 노화 담론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산적’인 활동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생산활동은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는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 가정관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년기에도 이러한 생산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노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적 노화 담론의 주장이다. 즉, 이러한 논의는 생산적 활동을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급노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노인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들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활동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국민계정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계정체계는 기존의 생산개념에 기초하여 있으며, 비가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

활동 등을 생산활동에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에 기초한 위성계정을 산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노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량화하는 노력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생산적 활동이 노인의 생활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포괄적이고도 실증적인 접근을 통하여 노인의 생산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에 기초하여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노인의 생산활동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노인이 실제 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이윤경 선임연구원, 윤지은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신윤정 부연구위원과 이소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동국대학교의 김정석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진욱 교수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생산활동 개념에 관한 고찰	19
제1절 생산활동 개념 검토	19
제2절 생산활동에 관한 주요 논의	26
제3장 생활시간조사로 살펴본 노인의 생활세계	35
제1절 활용자료의 특성	35
제2절 한국노인의 생활세계	42
제3절 노인의 생활세계 국제비교	52
제4절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화 및 국제비교	66
제4장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77
제1절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77
제2절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국제비교	82
제3절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와 기타 활동의 관계	90

제5장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95
제1절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95
제2절 경제적 가치평가	102
 제6장 결 론	11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21
 부 록	127
부록 1. 외국 노인의 생활세계 국제비교	128
부록 2.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유형의 결정요인	144

표 목차

〈표 2- 1〉 국민계정상의 활동분류	21
〈표 3- 1〉 「2004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37
〈표 3- 2〉 각 국가별 생활시간이용조사의 특성	39
〈표 3- 3〉 MTUS 41개 행위유형	40
〈표 3- 4〉 2004 생활시간조사와 MTUS의 활동코드 분류 및 비교	40
〈표 3- 5〉 한국 노인의 생활세계	45
〈표 3- 6〉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50
〈표 3- 7〉 노인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 노후생활유형화	68
〈표 3- 8〉 국가별 노인의 성별 노후생활유형	71
〈표 3- 9〉 국가별 노인의 연령별 노후생활유형 분석결과	72
〈표 3-10〉 국가별 노인의 거주지역(도시/농촌)별 노후생활유형 분석결과	73
〈표 4- 1〉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1
〈표 4- 2〉 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의 직업분포	82
〈표 4- 3〉 노르웨이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5
〈표 4- 4〉 독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6
〈표 4- 5〉 영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7
〈표 4- 6〉 이탈리아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8
〈표 4- 7〉 스페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89
〈표 4- 8〉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기타 활동종류별 비율 및 활동시간	91
〈표 5- 1〉 국내 연구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과 적용 임금률	98
〈표 5- 2〉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규모 및 구성	103
〈표 5- 3〉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GDP 대비 비율(%)	104
〈표 5- 4〉 노인의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	106
〈표 5- 5〉 노인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108

<표 5- 6> 노인의 자원봉사(광의의 개념) 활동의 경제적 가치	110
<표 5- 7> 노인의 자원봉사(협의의 개념) 활동의 경제적 가치	111
<표 5- 8> 노인의 생산활동의 노인1인당 경제적 가치	111
<표 5- 9> 참여노인 1인당 가치	112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그림 2- 1] 노인의 생활세계와 생산성 및 독립성	25
[그림 2- 2]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개념틀	31
[그림 3- 1] 노인의 하루 시간 구성	43
[그림 3- 2] 경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53
[그림 3- 3] 가정관리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55
[그림 3- 4] 가족보살피기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57
[그림 3- 5] 참여 및 봉사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58
[그림 3- 6] 사적개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59
[그림 3- 7] 교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61
[그림 3- 8] 종교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62
[그림 3- 9] 여가활동종류 및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64
[그림 3-10] 국가별 노후생활유형	69
[그림 4- 1]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국제비교	78
[그림 5- 1]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비SNA 생산활동의 가치 평가방법	·96

부표목차

〈부표 1- 1〉 국가별 노인의 제특성	128
〈부표 1- 2〉 노르웨이 노인의 생활세계(2000)	129
〈부표 1- 3〉 독일 노인의 생활세계(2001)	130
〈부표 1- 4〉 영국 노인의 생활세계(2000)	131
〈부표 1- 5〉 이탈리아 노인의 생활세계(2002)	132
〈부표 1- 6〉 스페인 노인의 생활세계(2002)	133
〈부표 1- 7〉 노르웨이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134
〈부표 1- 8〉 독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136
〈부표 1- 9〉 영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138
〈부표 1-10〉 이탈리아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140
〈부표 1-11〉 스페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142
〈부표 2- 1〉 분석 활용 변수의 기술통계	145
〈부표 2- 2〉 노후생활유형 결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47



Abstract

A wide range of polic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help older persons become more productive and active in an increasingly aging Korea. However, due to the stereotype of older persons, their social contribution is often under-apprecia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the economic values of older persons' productive activities visible and thus reduce the stereotype of older persons as passive and unproductive.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related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ional System of Accounts and productive ageing.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2004 Time Use Survey of Korea and MTUS to review and compare the profiles of time use of older persons in Korea, Norway, Germany, UK, Spain, and Italy. The third part takes a close look at productive activities older persons in six countries. The fourth part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Lastly,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further studies.

요약

1. 연구의 목적

- 새로운 생산개념에 기초하여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의 생산활동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생산활동을 기존의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및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 확대한 개념, 즉 기존의 SNA 생산활동과 비SNA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이러한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을 적용했을 때 한국노인의 절대 다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노인의 91.9%가 다양한 형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 기준 48조 7,550억 원으로 GDP 대비 5.4%에 달함.
 - － 이는 노인1인당 년1천만14만에 달하는 규모임.
-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진정한 이해는 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의할

때 가능함.

-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5개국 국제비교에 의하면, 노인의 90% 전후인 절대 다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협의의 생산활동은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노인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의 10% 미만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행태는 비교대상이 된 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전통적인 생산활동 참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노인의 41.0%가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해당하는 비가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행위율을 보인 노르웨이의 7.9%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임.

- － 노인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8조 5,827억원으로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총경제적 가치의 58.6%에 달하며, GDP대비 3.17%임.

- 반면 전통적인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확대된 생산활동인 가사노동,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은 45.3%로 80~90% 수준을 보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음.

- － 생활시간량에 기초한 유형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중 경제활동참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

□ 모든 국가에서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노동시장 참여 즉, 협의의 생산활동참여가 더 빈번한 반면,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확대된 개념의 생산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 그러나 남녀간의 차이의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노인에게서의 남녀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남성노인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여성노인의 경우에 비하여 높는데 이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고 참여시간도 많으며, 노년기에도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 이러한 노년기의 남녀간의 차이는 생활세계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가정관리·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에 집중되며, 남성노인은 여가활동형의 비율이 높음.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교육수준이 작동하는 방향에 한국과 유럽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남.
 -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여에 그리 크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국가에서는 비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즉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음.
- 도농간의 차이에 있어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하여 교제나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의 노인의 경우는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적음.
 - 한국의 경우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수준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매우 큼.
- 모든 국가에서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낮음.
-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시화·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노인이 다양한 생산활동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령화를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견해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켜가야 할 것임.

○ 노인에 대한 각종 자료에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및 그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 내용에도 포함하도록 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노인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가치가 손해배상이나 조세제도에 있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함.

□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노인의 유급노동활동참여가 매우 높은데 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일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유급노동참여 기회도 감소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유급노동을 하는 노인도 감소할 것임.

○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은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보다는 고용시장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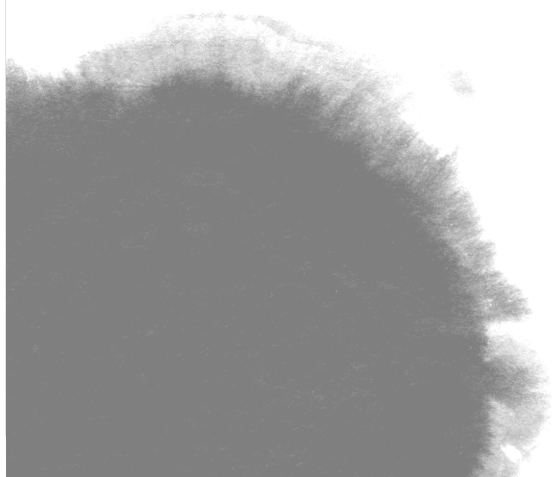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 실제적인 정년연령을 높혀 전기 노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 등으로 전수하도록 하여 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정년연장과 더불어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제도를 강화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 은퇴한 노인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발이 요구됨.
-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 행태를 보면 이웃돕기와 같은 비공식적 자원봉사가 많으므로 그러한 일상적인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가시화·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노년기 생활세계의 성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현 남성노인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남성노인들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는 노년기의 남녀차이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남성노인에게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임.
- 생산활동 외에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행위가 갖는 경제적 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이 정부의 국정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생산성의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적인 노년을 추구함으로써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때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활동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학문 영역과 정책 영역 모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 논의 자체가 최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의존이나 비생산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독립이나 생산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있으며 노인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무용한 존재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도 사실이다(정경희 외, 2006; 한경혜, 2000).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7기준)에 의하면 노인의 32.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절반 정도는 타인에게 경제, 정서, 도구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노인수발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노인이 주요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노인들은 무보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1). 그러나 기존의 개인이 갖고 있는 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을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Simonsick, 1995), 이러한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이 노동시장 내외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비노인의 약 1/2은 노인의 신체, 정서, 지적,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정경희 외, 2005).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산성 개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노년학 분야에서 이러한 기존의 생산성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을 이룬 것은 생산적 노화 담론이다(Moody, 2001). 생산적 노화담론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산적’인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생산적 노화담론은 생산활동을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도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나 가

죽,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생산활동이 노년기에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노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적 노화 담론의 주장이다. 즉, 이러한 논의는 생산 활동을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급노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노인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들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Herzog et al., 1989, 1996; Herzog & Morgan, 1992).

이러한 노인의 활동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계정체계는 기존의 생산개념에 기초하여 있으며, 비가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가족돌봄 노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생산활동에 포함하는 새로운 생산개념에 기초한 위성계정을 산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노인이 사회적 기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량화하는 노력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이 노인의 생활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포괄적이고도 실증적인 접근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노인의 생산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생산활동으로 인정하고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UN이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취업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워크숍(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생활시간조사의 실시 및 무보수 가사노동을 위성계정에서 산정하였고,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김태홍, 김난주, 권태희, 2007; Roy and Ziewek,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에 기초하여 노인이 실제하고 있는 생산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노인의 생산활동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노인이 실제 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검토를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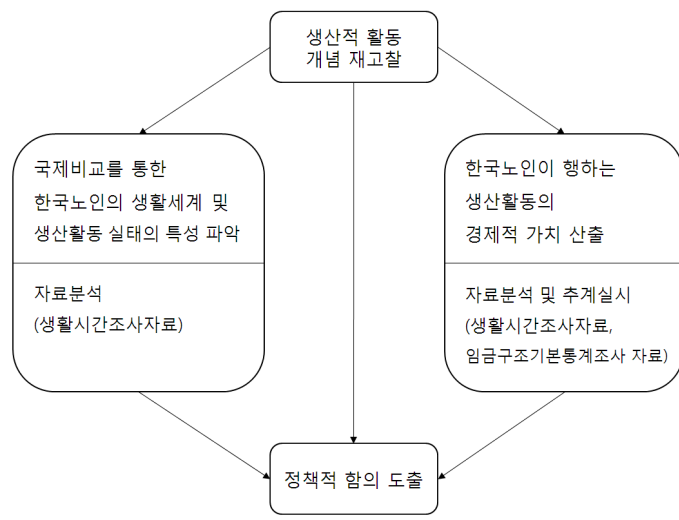
첫째, 노인의 생산활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생산활동의 계량화 작업을 대표하고 있는 국민계정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노화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이론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생산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비교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활용할 생산적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의 실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4년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 실태의 특성을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실태가 다른 국가의 노인들과 동일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는데, 국제비교에는 MTUS(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노인의 활동실태에 대한 유형화 작업

을 실시하고 이러한 유형분포와 노인의 제 특성별 유형분포의 차이에 있어 국가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시간분포를 벗어나 생산활동의 개념에 기초하여 한국노인들의 생활세계를 국제비교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다른 국가 노인의 생활세계와 비교한 한국노인의 생활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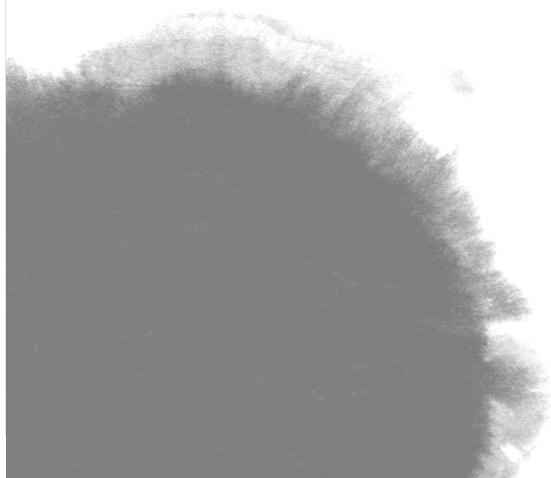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셋째,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한국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이 갖는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와 더불어 생산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02

생안활동 개입에 관한 고찰



제2장 생산활동 개념에 관한 고찰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의 제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국민계정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적 노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적·이론적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장은 노동시장 참여활동만을 생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활동 개념이 사회구성원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여를 담아내기에는 협소한 개념이며, 따라서 노동시장 밖에서 무보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산활동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생산활동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고찰하고 본 연구에 활용할 생산활동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제1 절 생산활동 개념 검토

1. 국민계정체계상의 생산활동 개념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한 국가의 국민경제수준과 각 경제주체간의 거래활동을 국민경제통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중심체계와 기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행 2000). 1993년에 UN이 발표한 1993 SNA는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 경제·사회적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성계정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는다).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의 틀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산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계정으로 주 계정인 국민계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환경경제통합계정(SEEA)²⁾, 관광위성계정(TSA)³⁾, 보건 위성계정 및 기타 위성계정 등이 시행중이다. 이러한 위성계정의 제시는 지금까지의 협의의 생산활동의 개념에서 광의의 생산활동 개념으로의 관점의 확대를 의미하는 의의가 있다.

기존 국민계정의 중심이 되는 생산활동의 개념은 “제도단위의 통제와 책임 하에 노동과 자본, 재화 및 서비스를 투입물로 사용하여 산출물로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은행, 1996). 따라서 기존의 국민계정체계(SNA)는 무보수 가사노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비SNA 활동으로 분류하여 생산개념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활동의 범위를 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본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면 시장노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무보수 노동도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93년에 발표된 국민계정은 이러한 확대된 생산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현재 국민계정에 의할 때 사회구성원이 행하는 생산활동은 SNA 생산활동과 비SNA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1993 SNA 체계는 크게 중심체계와 기타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중심체계는 한 경제의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해주는 계정 또는 표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체계는 특정분야에 대한 분석능력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계정체계와 계정을 행렬형태로 표시한 사회계정행렬(SAM)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위성계정체계는 국민계정상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계정 내의 특정 분야(환경, 관광, 교육 등)를 보다 세분화시켜 심층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해주는 기능지향적 위성계정과 기존의 국민계정상의 경제적 개념에 환경요소까지 감안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러한 위성계정체계는 현존하는 SNA 구조가 확장되고 대안적인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함. 위성계정은 주요 국민계정과 구분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임. 위성계정의 주된 목적은 “중심체계를 혼란시키지 않고, 선택된 사회 관심영역을 위한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의 여러 통계기관에서는 가계생산,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의 환경적 효과와 같은 분야에서 위성계정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음.

2) UN에 의하여 1993년에 도입된 환경경제통합계정(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은 다수 국가에서 수행중이며, 한국의 경우 2005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1월에 편제를 완료하여 발표하였음.

3) OECD와 WTO(세계관광기구)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많은 선진국 등이 개발·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1년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5번째임.

〈표 2-1〉 국민계정상의 활동분류⁴⁾

활동의 종류	특징
SNA 생산활동	● 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본장치를 빌리는 것에서 발생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될 수 있는 ‘제3자’ 기준과 ‘대안시장’ 기준에 따름. ● 기존의 경제 개념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짐.
비SNA 생산활동	● 식사준비, 자녀돌보기, 성인돌보기, 의류관리 및 재봉, 주거 및 주거설비 보수 및 유지, 가정경영, 쇼핑, 정원가꾸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과 지역활동들을 위한 무보수 노동을 포함. ● 화폐의 교환 없이 가게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의미
비경제적 활동	● 개인적 활동(신체적, 레크레이션 활동, 독학 등)을 의미 ● 심리적·교육적·여가활동을 포함

2. 생산적 노화 담론에서의 생산활동 개념⁵⁾

가. 개요

1982년 처음으로 Burtler에 의하여 이론적 논의의 장에 등장한 ‘생산적인 노화’ 개념은 의존이라는 개념 대신에 생산성과 노인이 갖고 있는 생산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시도한 것으로 노인이 갖고 있는 생산적 가능성의 구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Butler & Gleason, 1985), 생산성이라는 노인의 삶의 개념을 중심에 놓으려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생산적 노화에서 논의되는 생산활동은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지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4) 이러한 정의는 Goldschmidt-Clermont & Pagnossin-Aligisakis(1999)에 기초한 것으로 몇몇 학자들은 교육을 경제활동으로 간주하기도 함. 저자는 교육은 건강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며, 이러한 활동은 SNA 활동, 비SNA 활동과 개인활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제3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생산적 노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Morrow-Howell, Hinterlong, and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2003)에 기초하여 있음.

(Bass and Caro, 2001; Caro, Bass and Chen, 1993).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생산활동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형태로 계량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단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가치 또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단지 자산을 풍요롭게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즉 노인이 행하는 활동이 생산적 활동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동이 그 자신이나 사회에게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생산적 활동을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하는데 있어 학자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협의로 생산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Rowe and Kahn(1998)이나 Caro, Bass와 Chen(1993)은 가정관리활동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면 가장 광의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Butler and Gleason(1985)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자원봉사,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생산적 활동에 포함함으로써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좀 더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모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무엇을 산출해내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가 여부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이 갖고 있는 다차원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경제적인 정의에 의하면 화폐적 가치로 측정되는 교환적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생산성의 주요개념이다. 한 사회의 생산성은 GNP로 측정된다.

반면 사회적 생산성은 이러한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화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산물도 그 사회의 가치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사회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노인이 가족, 사회, 그리고 제도에 기여하는 내용은 단지 화폐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특히 노인들은 아이디어, 보호, 사랑, 정보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세대이전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Uhlenberg, 2000). 한 사회의 생산성은 교육수준, 기대수명, 유병률, 개인적인 자율성의 수준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심리적인 생산성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배가시키는 활동에의 참여로 확대된다(Birren, 2001). 그러므로 생산성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출발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더불어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찰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적 노화의 담론은 노년기를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의 시기로 본다. 노인을 단순한 서비스 구매자로 또는 사회의 부담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노동자로 사회에 평생 기여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한 기여의 대가를 유급으로 받든 안 받든 간에 강조점은 노년기의 가치를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구’나 성취에 맞추어져 있고 ‘비뺨의 윤리’를 강조한다.

반면에 삶을 관조하는 성찰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영적 추구자로 간주하는 의식적 노화론(Conscious Aging)은 노년기의 중년기의 역할이나 목적을 넘어서 종교, 예술 등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기여야 한다고 본다(Wilber, 1996; Moody, 2005, 2001). 이러한 관점에 의할 경우 종교 활동이나 교제활동, 여가활동 등도 그 것이 갖는 고유의 기능과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의 삶에 있어서 생산성이나 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성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적인 성숙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경제적 생산성만으로는 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산성의 측면을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의 경제

적 생산성에 대한 평가절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부인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경제적 생산성 외에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측면의 생산성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의 생산활동 개념의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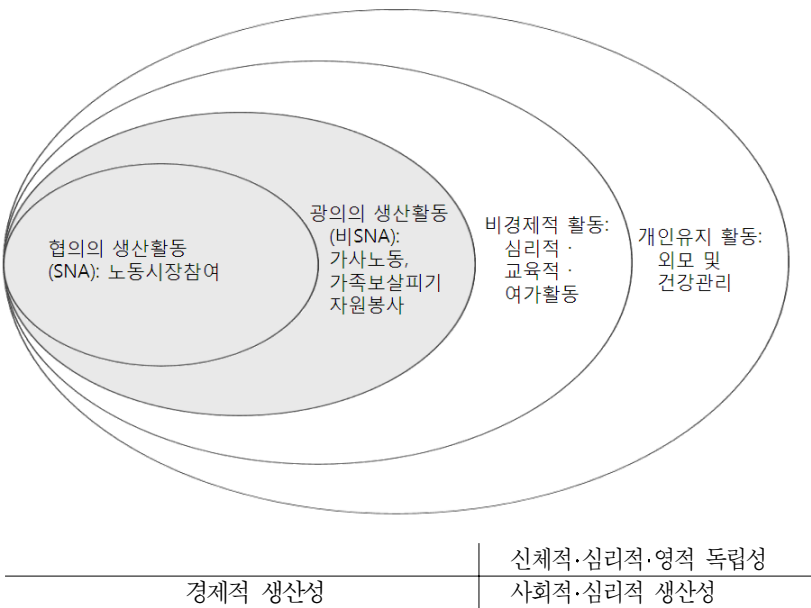
생산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생산활동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참여활동만을 생산활동으로 규정하는 매우 좁은 범위의 협의의 개념부터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생산활동 개념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또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인적자본 개발의 측면에서 생산적 활동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은 비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제3자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을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관점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생산활동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과 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경제적 생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는 화폐적 가치의 측정은 단지 노인이 갖고 있는 생산성의 한 측면일 뿐으로 노인이 행하는 무형의 사회적 기여와 노인자신의 성장과 관련된 심리적 및 성찰적 측면이 갖고 있는 가치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자아실현의 욕구나 자존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등과 같은 상위의 욕구 충족 자체를 위한 행위도 사회적 가치를 가진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산활동을 기존의 경제활동참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및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 확대한 개념, 즉 기존의 SNA 생산활동과 비SNA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경제적 활동도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영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비SNA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논의와는 구분된다. 단, 사회적·심리적인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비가시적인 경제적 생산성조차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생산성 인식의 외연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노인의 생활세계와 생산성 및 독립성



제2절 생산활동에 관한 주요 논의

1. 각 생산활동 항목별 주요 논의점

가. 경제활동⁶⁾

전통적인 생산활동인 일은 노년기에 그 참여의 폭이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고용으로 대표되는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Caro, Bass, Chen(1993)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화된 연령차별주의(institutionalized ageism)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고용과정에서의 노인에 대한 배타성뿐만 아니라 고령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낮은 인정수준, 훈련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 주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노동자집단으로부터의 배제와 같은 미묘한 차별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령노동자는 비생산적이며, 병이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고 부가급부의 측면에서 볼 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이러한 차별적 관행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고령노동자가 내면화시킴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근로자의 낮은 고용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풍요/여가 선호’가설이다. 현세대의 노인들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지면서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노년기는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시기라는 사회적 규범을 지지하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사람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는 노인들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인의 자

6) 전통적인 생산활동으로 간주되어온 활동은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에서는 ‘일’로 표현되고 있음.

산규모가 증대하면 은퇴는 계속 빨라지고 고용률은 낮아질 것이며, 직업에 만족할수록 은퇴시기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 좀 더 노동시장에 남고자 할 것이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생산적 활동을 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노동시장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 번째 가설은 세대 간의 갈등 가설이다. 갈등론에 의하면 사회집단들은 부족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데 각 집단은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젊은 세대의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기은퇴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노인세대와 청장년세대의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고용수준은 그 사회의 노동시장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향후 산업이 변창하면 고령자 고용도 확대될 것이며, 경제불황기에는 고령자 고용이 축소되는 것으로 본다. 노인의 고용은 대항력(opposing forces)의 상대적인 강도에 의하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고령인구의 규모와 청장년층의 규모의 상대적 크기,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노인의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불황기에는 노인과 청장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가설은 Ogburn의 제도지체론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의 제도적 변화가 내재하고 있는 경직성과 복합성으로 인하여 기술적 진보에 상응하는 변화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확립된 조기은퇴제도가 우리사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리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의 경제적 가치가 정책결정자에게 적절히 인식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상태의 향상과 직장에서의 육체적 노동의 요구가 감소함에 따른 노년기의 생산성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iley를 대표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지금과 같은 사회는 연령분리적 사회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사회구성원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 노동, 여가에 있어서의 연령통합이 제고

되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iley and Riley, 2000). 제도지체론은 향후 노인의 고용상태는 기업이 고령근로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현재의 고용정책을 고령근로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정도, 즉 기업가의 ‘계몽’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고용자와 고령근로자의 교육을 통하여 고령근로자에 대한 신화가 대체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고용주는 고령자 근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책을 견지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자원봉사

사회참여의 한 형태인 자원봉사는 전문화 및 상품화 속에서 그 가치가 저하되어 왔지만, 지역사회의 욕구의 복잡성과 저소득층의 서비스와의 접근성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기노인이 중요한 자원봉사자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Hendricks & Cutler, 2004)과 관련하여 지속이론은 생애 주기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노년기 이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기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노년기 자원봉사참여의 중요 예측변수가 된다(Chambre, 1987). 생애 전반기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내면화 한 사람은 노년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풍요로움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여유있는 시간을 향유하는 방법에 있어 여가활동이 자원봉사활동과 경쟁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여가활동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상대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비하여 노인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갈등이론은 고용과 자원봉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한다. 유급노동자와 자원봉사자는 모두 노동의 자원으로 간주되며, 때에 따라 유급노동자는 자원봉사자를 경쟁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Brudney, 1990). 어떤 조직은 유급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주변적 역할로 간주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일도 있다.

반면 제도지체론은 건강한 은퇴자의 경우 여가활동을 추구하도록 사회화되었지만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변화를 추진한다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가족 보살피기

무보수로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생산활동인 가족보살피기는 노인의 경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 간의 지원은 노년기에도 지속되고 있어 자녀세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보다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이 많다(Rossi and Rossi, 1990). 그 중 특히 쇠약한 성인구성원을 위한 부양과 아동보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가족 내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Riley, 1983; Rossi and Rossi, 1990). 이혼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조부모가 중요한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 조부모가 중요한 보육서비스 제공자로 활용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수발에 있어서(Dwyer and Coward, 1992; Hooyman & Gonyea, 1995; Kane & Penrod, 1995; 한경혜, 1998) 이들 가족수발자는 여성이며 약 절반 정도가 60대 이상이다.

노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이웃에게 제공하는 수발서비스는 수발대상자의 기능상태, 의무감을 느끼는 정도, 대체가능한 서비스나 수발자 유무 등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손자녀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손자녀의 수, 조부모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노

인이 행하는 가족지원 활동에는 물론 노인의 가족보살피기예의 부양의지(willingness)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규모,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겠다.

2. 생산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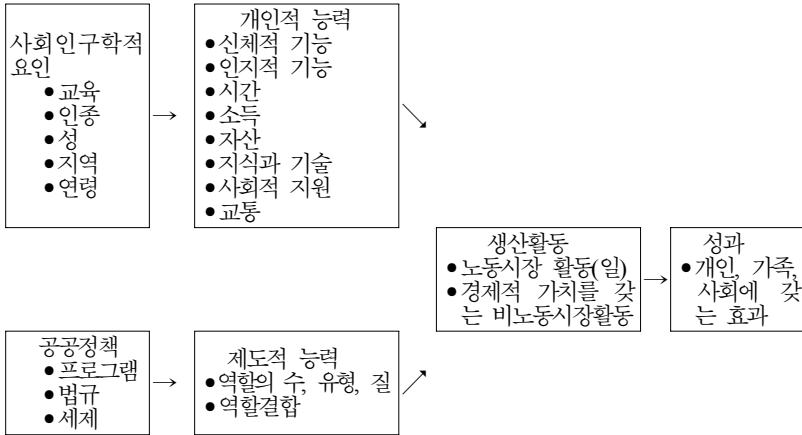
생산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생산적 노화에 이르는 요인은 다음 [그림 2-2]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다. 이에는 성, 인종,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주거지 등이 속한다. 이는 주어진 것으로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개입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적 능력과 구분되는 측면이다. 둘째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는 공급적 측면이며 개별적인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다.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경제적 자원, 시간, 지식과 기술, 사회적 지원, 이동 등이 이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는 코호트 내의 변이가 존재하며 개인별로 상이한 생산적 활동 양상을 가져온다(Dannefer & Uhlenberg, 1999).

셋째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맥락인 공공정책이다. 이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규정, 세제 등이 속한다. 넷째는 수요의 측면으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인 제도적 능력이다. 기업, 공공 및 민간 에이전시, 교회, 사회단체, 가족 등이 노인들의 생산적 역할 수행을 창출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노인을 생산적인 역할로 이끌 수 있다. 각 제도 들은 산출하는 역할의 종류와 수가 다양하며, 개인을 역할과 연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노인들에게 특정 역할과 관련된 정보, 기회, 혜택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능력은 생산적 활동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주요 원인이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체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 중 개인적 능력과 사회제도적인 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개입의 규모와 내용

에 따라서 특정 사회의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그림 2-2]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개념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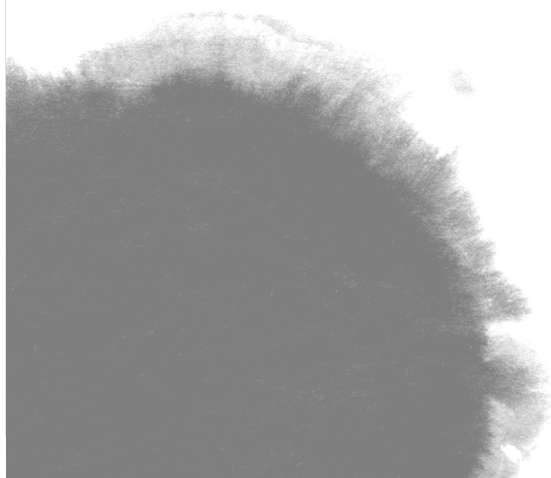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3. 함의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생산활동간에 대체적인 관계(trade-off)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즉 노인이 한정된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참여, 가사노동 및 가족 보살피기, 자원봉사 활동, 여가활동 등이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생산활동 여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태의 활동 유형을 보이는가 하는 점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배분 유형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노인의 개인적인 선호 등이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가별 차이나 노인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생산활동참여를 이해하고자 하며, 노인의 특성별 분석을 통하여 노인간의 차이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국가별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03

생활·간조사로 살펴본
노인의 생활세계



제3장 생활시간조사로 살펴본 노인의 생활세계

본 장에서는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노인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전체적인 활동의 맥락 속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04년도 생활시간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다양한 활동참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 특성별 참여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활동실태에 있어 노인의 제 특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밝혀보는데 분석의 목적이 있다.

셋째는 이러한 한국노인의 참여활동실태가 다른 국가의 노인들의 참여활동실태와 동일한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MTUS(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5개국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생활시간 이용이라는 전체적인 삶의 맥락속에서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을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분포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1절 활용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와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자료인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MTUS)’이며 해당 자료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생활시간실태조사의 개요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가구관련사항⁷⁾ 4개 항목(입주형태, 다른 곳에 주택 소유여부, 주거용 면적, 자동차보유 현황)과 개인관련사항⁸⁾ 15개 항목(인구학적 특성, 미취학 자녀보육 여부,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이유, 성(gender) 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시간일지가 조사되었다. 시간일지의 행동분류체계는 응답자가 행동한 목적에 따라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37개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다(표 3-1 참조). 3장의 분석내용은 주행동을 기준으로하고 시간일지를 단위로 한 분석 결과이다.

2.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MTUS)의 개요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MTUS)은 동일한 변수들을 가진 국가 간의 동일한 생활시간 이용조사 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던 Jonathan Gershuny 교수의 아이디어로 198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MTUS dataset 초본은 약 20개 국가들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후 점차 확장되고 있다.

7) 농어가 구분, 주택의 종류 등은 2004. 8월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활용.

8) 학력, 혼인상태 항목은 2004. 8월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 활용.

〈표 3-1〉 「2004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1	개인유지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11	수면	
	111	수면
	112	낮잠·졸음
12	식사 및 간식	
	121	가족과의 식사
	122	혼자 식사
	123	가족외 사람과의 식사
	124	간식과 음료
13	개인관리	
	131	개인위생
	132	외모관리(화장, 옷갈아입기 등)
	133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14	건강관리(의료적)	
	141	자기 치료
	142	의료서비스 받기
	143	아파서 쉬
19	199	기타 개인유지

2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1	주업
	212	부업
	213	일 중 휴식
	214	일 관련 연수
	215	집에 가져와서 일함
	216	그 외 일 관련 행동
22	220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 제외)
23	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240	자기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250	구직활동
26	260	일 관련 물품구입
29	299	기타 일 관련 행동

3	학습	
31	학생의 정규수업	
	311	수업
	312	정규업 사이의 휴식
	313	학교에서 스스로 학습
	314	학교행사
	319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 행동
32	학생의 정규수업 학습	
	321	정규수업의 강습
	322	학교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323	학교외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 행동
33	330	학습 관련 물품구입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식사준비
	412	설거지, 식후정리
	413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42	의류 관리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2	옷장리(세탁물 걷기, 옷장정리등)
	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 손질
	424	의류수선, 세탁 서비스 받기
	425	재봉, 뜨개질
43	청소 및 정리	
	431	방·물품 정리
	432	집안청소(쓸기, 닦기)
	433	그 외 청소 및 정리
44	집 관리	
	441	가재도구·집손질관련 서비스받기
	442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서비스받기
	443	그 외 집관리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1	식재료(식료품, 일용품, 세제, 휴지등)
	452	소평하기(의복, 신발, 장식품 등)
	453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454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46	가정경영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47	499	기타 가사일

5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1	신체적돌보기(씻기, 먹이기, 재우기 등)
	512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513	미취학 아이 간호
	519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씻기, 등·하교 도와주기
	522	숙제 및 공부 봐주기
	523	미취학 아이 간호
	524	초·중·고등학생 간호
	529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31	배우자 간호
	539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4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549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외 가족 보살피기	
	551	그외 가족 간호
	559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표 3-1〉 「2004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계속)

6	참여 및 봉사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11	소득이 있는 활동 돕기
	612	가사활동 돕기
	619	기타 일 돕기
62	참여활동	
	621	외부적 참여활동
	622	생산적 참여활동
	629	기타 참여활동
63	자원봉사	
	631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632	자녀교육 관련
	633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634	재해 주민돕기 및 사회복구 관련
	639	기타 자원봉사(헌혈, 무료상담 등)
7	교제 및 여가활동	
71	교제활동	
	711	교제 관련 전화통화
	712	가족·친척과의 교제
	713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714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채팅 등)
	715	성묘, 별초
	719	기타 교제 관련 행동
72	일반인의 학습	
	721	외국어 관련 학습
	722	컴퓨터 관련 학습
	723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가능, 기술 등)
	724	취미 관련 강습
	729	기타 일반인의 학습
73	미디어 이용	
	731	신문
	732	잡지
	733	TV
	734	비디오, DVD
	735	라디오
	736	CD, TAPE 등 음악 듣기
	737	인터넷 정보검색 (PDA나 휴대폰으로 서비스 받는 경우 포함)
74	종교활동	
	741	개인적 종교 활동
	742	종교 집회·모임 참가
	743	그 외 종교 관련 행동
75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751	영화(극장·비디오방)
	752	연극, 콘서트
	753	전시회, 박물관
	754	스포츠 경기 관람
	755	그 외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관련 행동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761	걷기, 산책
	762	등산, 하이킹(삼림욕 포함)
	763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맨손태권,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764	그 외의 스포츠(농구, 축구, 볼링, 당구, 골프,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기타 경기 등)
	765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766	그 외 집 밖의 레저활동 (낚시, 캠핑, 놀이공원 등)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71	독서
	772	컴퓨터 게임
	773	놀이(야구, 놀이 바둑, 장기, 화투, 카드 등)
	774	그 외 취미활동 (서예, 만들기, 모으기, 연주하기 등)
	775	유흥(술, 춤, 노래방)
	776	답배 피우기
	777	아무것도 안하고 쉼
78	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악기, 쇼팽, 비디오 빌라기, 여가용품 사기 등)
79	79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8	이동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81	811	대분류1 개인유지 관련 이동
	821	대분류2 출·퇴근
82	822	대분류2 그 외 일 관련 이동
83	831	대분류3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84	841	대분류4 가정관리 관련 이동
85	851	대분류5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86	861	대분류6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871	중분류71 교제활동 관련 이동
	872	중분류72 일반인의 학습관련 이동
87	873	중분류 73-79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미디어, 종교, 관광, 스포츠, 취미 등)
89	891	기타이동
80	80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9	기타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91	9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조사담당자의 전화통화, 조사 관련 대화 등)
99	999	그 외 기타

집 안 / 집 밖		
0	집 밖	자신의 집 밖 (친척집, 친구집, 야외 등)
1	집 안	사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주된 생활공간 자기집 대문안, 율타리안)

이 동 수 단	
2	도보
3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4	전철
5	택시
6	승용차
7	자전거, 오토바이
8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고속철도
9	기타이동수단 항공기, 선박, 특수차 등)

자료: 「2004 생활시간조사 지침서」의 부록 중 「2004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제 5판에 해당하는 World 5버전 data의 경우 35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었고, 20세에서 59세 까지의 자료로 한정되어 있었다⁹⁾. 이후 MTUS coordinating committee는 5.52버전부터 전 연령층으로 data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는 World 5.53 버전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의 조사별 기본 정보는 <표 3-2>와 같다.

<표 3-2> 각 국가별 생활시간이용조사의 특성

국가	연도	연령대상	조사규모	조사기간 (개월수)	응답률(%)	시간일지 (일수)	시간일지 유형	시간간격
노르웨이	2000	9+	3211	12	50.0%	2	On day	10분
덴마크	2001	16-74	4000	4	70.0%	2	On day	10분
독일	2001	10+	11919	12	95.5%	3	On day	10분
영국	2000	8+	11667	12	45.0%	2	On day	10분
스페인	2002	10+	46774	12	86.0%	1	On day	10분
이탈리아	2002	3+	55773	12	91.8%	1	On day	10분

MTUS의 활동코드는 총 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조사에 따라 해당 변수가 조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는 무응답과 구별된다. 각 활동에 대한 MTUS 활동코드는 다음과 같다(표 3-3참조).

이상의 MTUS 활동코드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2004생활시간조사 활동코드와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dataset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을 위한 주요활동의 카테고리를 결정한 후 MTUS의 활동코드와 2004 생활시간조사 활동코드를 <표 3-4>와 같이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9) 실제 조사는 더 넓은 범위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표 3-3〉 MTUS 41개 행위유형

변수명	내용	변수명	내용
AV1	Paid work	AV21	Walking
AV2	Paid work at home	AV22	Religious activities
AV3	Paid work, second job	AV23	Civic activities
AV4	School, classes	AV24	Cinema or theatre
AV5	Travel to/from work	AV25	Dances parties
AV6	Cook, wash up	AV26	Social clubs
AV7	Housework	AV27	Pubs
AV8	Odd job	AV28	Restaurants
AV9	Gardening	AV29	Visit friends at their homes
AV10	Shopping	AV30	Listen to radio
AV11	Child care	AV31	Watch television or video
AV12	Domestic travel	AV32	Listen to records, tapes, cds
AV13	Dress/personal care	AV33	Study, homework
AV14	Consume personal services	AV34	Read books
AV15	Meals and snacks	AV35	Read papers, magazines
AV16	Sleep	AV36	Relax
AV17	Free time travel	AV37	Conversation
AV18	Excursions	AV38	Entertain friends at home
AV19	Active sports participation	AV39	Knit, sew
AV20	Passive sports participation	AV40	Other leisure
		AV41	Unclassified or missing

MTUS에서는 22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중 2000년 이후 자료로 5.53 버전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5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¹⁰⁾.

10) 이들 국가는 각 복지국가유형을 대표하고 있음.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북유럽형을 독일이 대륙유럽형국가로, 영국이 앵글로색슨형 국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남유럽형 국가에 속함.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일한 복지국가 유형이기는 하지만 노인과 아동서비스 발전수준이 상이하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임(Antonnen and Sipilä, 1996).

〈표 3-4〉 2004 생활시간조사와 MTUS의 활동코드 분류 및 비교

	2004 생활시간조사	MTUS
노동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 무급가족종사일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구직활동 26. 일 관련 물품구입 29. 기타 일 관련 행동	1. paid work 2. paid work at home 3. paid work second job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 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집 관리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6. 가정경영 49. 기타 가사일	6. cook/wash up 7. house work 9. gardening 10. shopping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8. other domestic work ¹⁾ 11. child care
참여 및 봉사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2. 참여활동 63. 자원봉사	23. civic activities
일반인의 학습활동	72. 일반인의 학습	4. school/classes 33. study, homework
교제활동	71. 교제활동	26. Social clubs 29. Visit friends at their homes 37. conversation 38. Entertain friends at home
종교활동	74. 종교활동	22. religious activities
기타 교제 및 여가활동	73. 대중매체 이용 - 733(TV) 제외한 대중매체 이용	30. listen to radio 31. Watch TV or video
	73. 대중매체 이용	32. Listen to records, tapes, cds 35. read papers, magazines
	75.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20. Passive sports participation 24. Cinema or theatre
	7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18. Excursion 19. Active sports participation 21. Walking
	77.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 - 777(아무것도안하고 쉬) 제외	25. Dances or parties 27. Pubs 34. read books 36. Relax ²⁾ 39. Knit, sew 40. other leisure

주: 1) MTUS의 경우 other domestic work에는 가족보살피기 외에도 옷수선, 집안 수선, 차유지, 가게관련 서류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 비하여 다소 과대과락될 수 있음.

2) relax에는 일부 아무 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제2절 한국노인의 생활세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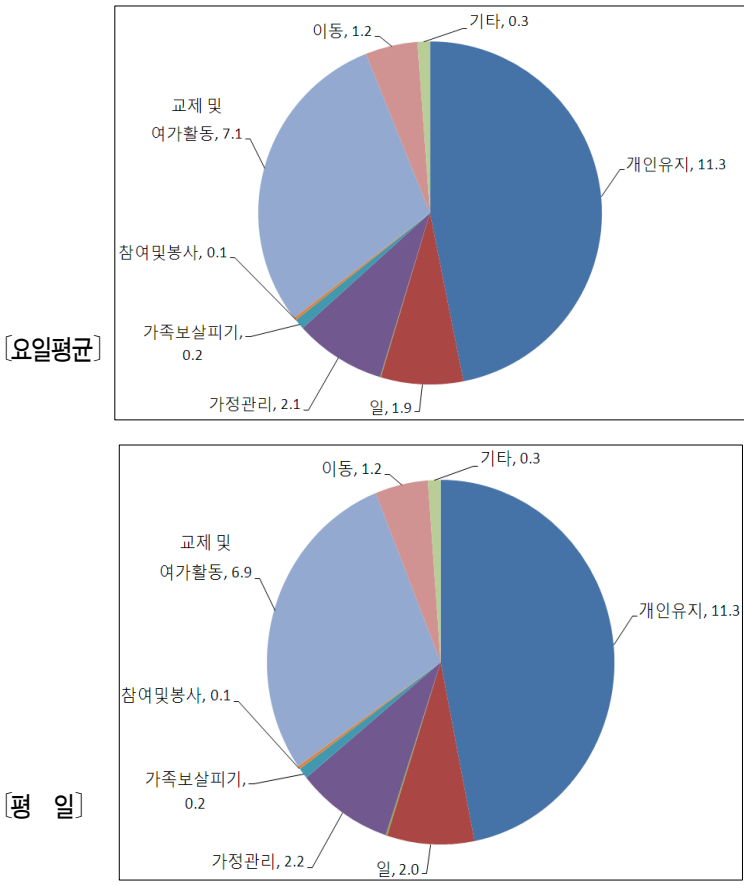
한국노인의 하루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시간 중 약 절반을 개인유지 활동에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7시간 2분을 교제 및 여가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다음은 가정관리와 일에 약 2시간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하루는 주말에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약간 증가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평일과 주말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요일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일상생활세계를 각 활동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생산활동의 개념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인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노인의 41.0%가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평균 4시간 33분의 노동을 하고 있다. 확대된 생산활동의 개념에 의할 경우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이 포함되는데 노인의 79.8%가 가정관리를, 15.7%가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체계 하에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던 보살핌 노동(caring work)을 하고 있다. 또한 3.4%가 참여 및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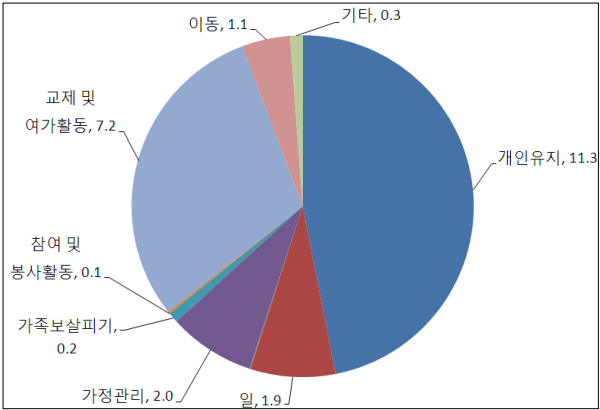
다음으로 생산활동 외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삶에 있어 도구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사적개발활동의 경우 극소수인 1.3%만이 참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산활동의 개념에 속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노인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 교제활동은 교제를 통하여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는 일종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에 있어서 무시되어서는 안될 활동이다. 종교활동의 경우도 삶을 관조하는 명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행위라는 점(Moody, 2001)에서 노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제활동에 노인의 70.8%, 종교활동에는 노인의 15.4%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노인들이 대중매체 이

용,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와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표 3-5 참조). 그러나 여가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은 매우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TV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인이 많아서, 관람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노인은 0.7%에 불과하며 실제 TV를 제외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노인은 16.6%이다. 또한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을 하는 노인은 45.2%이고, 취미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26.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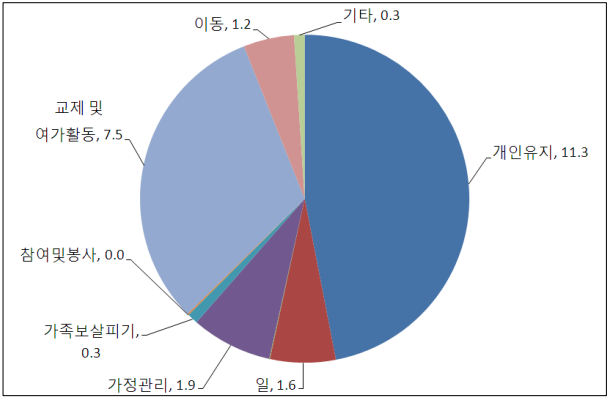
[그림 3-1] 노인의 하루 시간 구성



[토요일]



[일요일]



〈표 3-5〉 한국 노인의 생활세계

(단위: %, 분)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경제활동(일)	41.0	272.7 (202.5)	111.9 (186.6)
광의의 생산활동	가정관리	79.8	155.2 (115.1)	123.9 (120.2)
	가족보살피기	15.7	89.1 (99.1)	13.9 (50.8)
	참여 및 봉사활동	3.4	106.7 (107.4)	3.6 (27.6)
기타 활동	사적개발활동	1.3	99.7 (57.2)	1.3 (13.0)
	교제활동	70.8	97.3 (78.2)	68.9 (79.3)
	종교활동	15.4	135.7 (106.7)	20.9 (64.4)
	여가활동	99.0	336.5 (181.9)	333.1 (184.2)
	TV를 제외한 대중매체 이용	16.6	72.4 (69.6)	12.0 (39.1)
	TV를 포함한 대중매체 이용	95.9	231.5 (141.0)	222.0 (145.5)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0.7	109.6 (79.8)	0.8 (11.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45.2	89.2 (65.0)	40.3 (62.3)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26.1	107.9 (84.3)	28.2 (64.1)
	개인유지	100.0	675.7 (129.2)	675.7 (129.2)
	이동	80.1	88.0 (71.3)	70.5 (72.9)
	기타	60.3	27.8 (15.2)	16.8 (18.0)

2. 한국노인의 제 특성별 생활세계

가. 협의의 생산활동참여 - 경제활동(일)

노인의 제 특성별 경제활동 행위를 살펴보면 한국노인의 경우 성별 활동참여행태에 큰 차이가 발견된다. 남자노인의 49.2%가 여자노인의 35.6%가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행위가 낮아진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성·연령에 따른 참여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구조가 존재하며 노인의 신체적 노화가 심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가노인의 경우 80.9%가 참여하고 있어 비농가 노인의 28.6%에 비하여 참여율이 매우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행위가 낮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행위가 40% 미만이다. 이는 현재 노인에게는 교육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성격의 일이 주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경제활동 행위가 높고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활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정도별로 비교해보면 경제활동 행위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으며 가정관리행위의 경우는 미혼의 경우 월등히 높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표 3-6 참조).

나.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된 생산활동 개념에 속하는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생산활동의 경우와는 다른 현상이 발견된다. 가정관리의 경우 여자노인의 대부분인 93.3%가 가정관리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남자노인은 59.4%로 30%포인트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매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남자노인

들도 일정 정도는 가정관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보살피기의 경우도 여자노인은 17.9%의 행위율을 남자노인은 12.2%의 행위율을 보이고 있다. 봉사활동의 경우 또한 여자노인이 3.8%의 행위율로 남자노인의 2.8%보다 약간 높다. 즉 전통적인 생산활동과는 달리 확대된 생산활동의 개념에 속하는 활동에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군별로는 가정관리활동이나 봉사활동참여에는 차이가 없다. 반면 가족보살피기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위율이 감소한다. 지역별로는 비농가의 경우가 농가에 비하여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의 참여가 높다. 비농가 노인의 80.6%가 가정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농가가 77.1%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비농가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고 손자녀를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는 없다.

교육수준별로 확대된 생산개념에 속하는 활동에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반면, 가족보살피기와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의 경우 가정관리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아 91.6%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가족보살피기의 경우는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 행위율이 높아 21.4%와 24.4%이다. 봉사활동의 경우는 가구주의 경우 가장 높아 행위율이 4.1%이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해보면 미혼이거나 사별·이혼상태인 경우는 대부분이 가정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가정관리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2.7%이다. 그러나 가족보살피기에 있어서의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거의 없다. 봉사활동은 사별·이혼상태인 노인이 행위율이 높은 반면 학습활동은 유배우 상태인 노인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소유여부별로 비교해보면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 활동에의 참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조금 높은 반면, 봉사활동 참여는 주택소유자에게서 약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기타활동 참여

1) 학습활동 참여

학습활동은 참여율이 매우 낮지만 노인의 제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의 1.0%에 비하여 약간 높은 1.6%이며, 75세 이상 연령군에서 참여율이 급감한다. 또한 농가에 비하여 비농가지역에서 행위율이 높으며,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행위율이 제일 높아 1.6%이다. 학력과 학습활동 참여의 관계를 보면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부터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여, 학습활동 참여에 있어 중학교 이상의 학력군과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대별 됨을 볼 수 있다.

2) 교제활동 및 종교활동 참여

교제활동 참여나 종교활동 참여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는 분명하다. 교제활동의 경우 여자노인의 73.6%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남자노인은 66.5%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종교활동의 경우 더욱 커 20.8%와 7.2%이다. 연령군별로는 교제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종교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행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연령층일수록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별로는 농가에 비하여 비농가거주 노인의 교제활동 및 종교활동 참여가 활발하다. 즉, 비농가거주 노인은 각각 72.5%와 17.9%의 행위율을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경우는 65.2%와 7.4%로 각각 비농가 노인에 비하여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도별로는 교육수준에 따른 교제활동이나 종교활동 행위에 있어 명확한 경향성이 없다. 가구주와의 관계의 경우 가구주의 경우 다른 성원에 비하여 교제활동 참여가 높고 조부모인 경우가 교제활동이 낮다. 또한 종교활동은 가구주의 배우자나 부

모인 경우 행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교제활동이나 종교활동 참여가 높아 이러한 활동이 배우자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대부분은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어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반면 TV시청을 제외한 대중매체 이용에 할애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노인의 특성별 차이가 크다. 남자노인(33.0%)이 여자노인(5.7%)에 비하여 활동참여율이 월등히 높으며, 도시지역노인(19.5%)이 농어촌지역 노인(7.4%)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으며 75세 이상 노인에게서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의 여가활동인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율에 있어서는 노인의 세 특성별 분명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스포츠 및 집박의 레저활동과 관련해서는 특성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각각 38.4%와 55.6%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농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비농가거주 노인에 비하여 참가율이 매우 낮아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도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39.0%와 17.5%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스포츠 및 집박의 레저활동과 더불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 대부분이 여가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은 일부이며, 특히 여성노인에 비하여 남성노인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6〉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경제활동 (일)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TV제외)		관광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고등학교	35.9	70.7	17.3	4.5			3.9	68.2	16.5	98.4		97.1(49.5)		1.0	61.0		32.8					
대학 이상	33.1	62.8	15.7	2.0			2.5	65.6	12.9	98.6		98.0(65.3)		0.4	68.2		45.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9.9	76.5	11.4	4.1			1.5	72.1	13.1	98.8		95.5(22.0)		0.7	48.3		29.0					
배우자	41.6	91.6	19.5	3.0			1.6	70.7	16.8	99.1		96.0(10.4)		1.0	37.3		17.9					
부모(장인·장모, 사부모)	23.3	77.2	21.4	2.1			0.8	68.6	18.2	99.1		96.4(10.8)		0.6	45.5		26.7					
조부모	20.1	88.6	24.4	0.0			0.0	64.3	13.7	99.1		98.1(7.5)		0.0	52.7		33.8					
기타	32.9	86.3	5.0	5.7			0.0	58.0	46.4	100.0		100.0(11.7)		0.0	22.3		17.6					
혼인·장도																						
미혼	25.6	100.0	0.0	0.0			0.0	74.4	25.6	100.0		100.0(0.0)		0.0	6.4		0.0					
유배우	48.5	72.7	16.4	3.0			1.4	68.2	11.6	99.0		96.4(23.7)		0.9	47.1		28.6					
사별·이혼	30.8	89.6	14.6	4.0			1.1	74.4	20.6	98.9		95.2(6.8)		0.5	42.7		22.7					
주택 소유 여부																						
있음	44.5	78.5	15.3	3.4			1.4	70.5	14.5	99.0		95.9(17.5)		0.7	44.7		26.8					
없음	25.3	85.9	17.2	3.1			0.9	72.1	19.2	98.7		95.6(12.7)		0.7	47.4		23.1					

제3절 노인의 생활세계 국제비교¹¹⁾

1.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 - 경제활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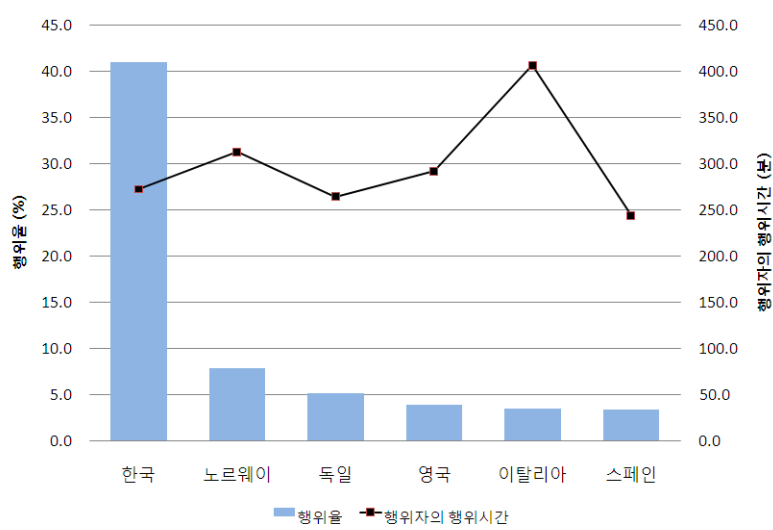
노인의 생활세계를 유럽5개국의 노인과 비교해보면 다양성과 차이점이 발견된다(부록 1과 <그림 3-2> ~ <그림 3-9> 참조). 협의의 생산활동에 속하는 활동을 한 행위자 비율은 모두 한국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노르웨이의 경우 7.9%, 독일 5.2%, 영국 3.9%, 이탈리아 3.5%, 스페인 3.4%로 한국노인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국가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행위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노르웨이의 7.9%에서 스페인의 4.0%까지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각 국가의 55~64세군의 고용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55~64세 군의 고용률이 74.5%로 영국(57.4%), 독일(51.3%), 스페인(44.6%), 이탈리아(33.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OECD, 2009a). 즉 노년기에 갑자기 경제활동참가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고용관행에 있어 연령을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며, 비교대상 국가 중 노르웨이가 가장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행위자율만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러한 활동에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일일 평균 4시간 23분의 노동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경제활동참여노인의 비율은 한국에 비하여 매우 낮

11) 노인의 제특성별 생활세계에 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으나 제4절에서 소개되는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화 및 국제비교에서 보고되는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에 있어 부록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국가의 노인의 제특성 또한 부록1에 제시되어 있음.

지만 경제활동참여자의 평균활동시간은 5시간 27분으로 한국노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유의해볼 점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의 직업이 일차산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하여(표 4-2 참조), 노르웨이의 경우 노인의 직업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 가 추측된다.

[그림 3-2] 경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반면 독일의 경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참여시간은 4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참여시간도 4시간 45분으로 독일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행위자의 참여시간이 6시간 41분으로 행위율은 낮지만 행위자의 근로시간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는 행위자의 평균시간인 4시간 4분으로 비교대상이 된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렇게 국가별로 전통적인 생산활동개념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여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국가별 다양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인은 절대적인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렇게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늦게 시작되어 노후빈곤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OECD, 2009b) 따라서 노후의 노동시장 참여는 자아실현이라는 측면보다는 소득창출의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현세대 노인의 상당수가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유럽국가 중 월등히 높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도 높아 상대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국가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참여자의 시간의 차이는 전체노인의 평균행위시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노인의 경우 약 2시간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25분, 독일과 이탈리아 14분, 영국 11분, 스페인 8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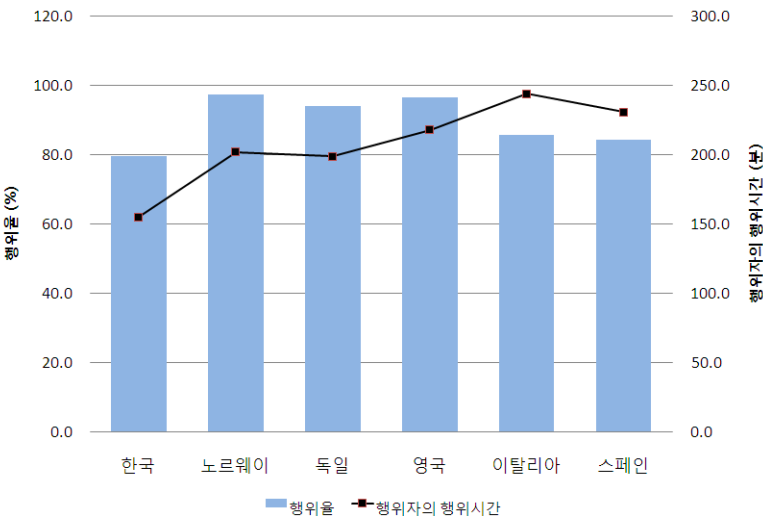
2.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

가. 가정관리활동

가정관리활동의 경우 노르웨이의 97.4%, 독일의 94.2%, 영국의 96.5%, 이탈리아는 85.8%, 스페인은 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노인의 79.8%가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노인의 가정관리활동 행위율이 가장 낮는데 이에 는 노인의 가구형태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독거나 부부가구와 같은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노르웨이나 독일, 영국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하여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동 비율이 60%이다. 한국의 경우는 가구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2004년도에 실시된 전국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단독가구의 비율

이 50% 수준이다(정경희 외, 2005). 바꾸어 말하면, 가족주의 모델에 기초한 남유럽형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노인의 경우 가정관리활동 참여율이 비교적 낮은 80%대이며 동일한 가족주의 모델국가인 한국노인의 경우도 가정관리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가정관리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가정관리활동을 한 노인의 관련행위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시간 35분이나 비교대상 국가들은 모두 3시간 이상의 가정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인은 4시간 4분이며, 스페인은 3시간 51분, 영국노인의 경우는 3시간 38분, 노르웨이 노인의 경우는 3시간 22분, 독일노인은 3시간 19분으로 가정관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노인전체의 평균시간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2시간 4분으로 영국 3시간 31분, 이탈리아 3시간 29분, 스페인 3시간 15분, 노르웨이의 3시간 8분, 독일의 3시간 3분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즉,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노인은 전체 노인의 절대 다수가 가정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균 3시간 이상을 그러한 활동에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²⁾.

나. 가족보살피기 활동

(손)자녀 및 성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보살피기 활동은 한국노인이 15.7%인데 비하여 노르웨이는 30.5%, 독일은 56.1%, 영국은 39.1%, 이탈리아는 28.9%, 스페인은 17.4%로 행위율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크다. 외국자료의 경우 가족보살피기 활동에는 성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집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파악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은 국가별 차이로 보여진다. 복지 국가유형별로는 대륙형에 속하며 아동 및 노인서비스가 저 발전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가장 행위율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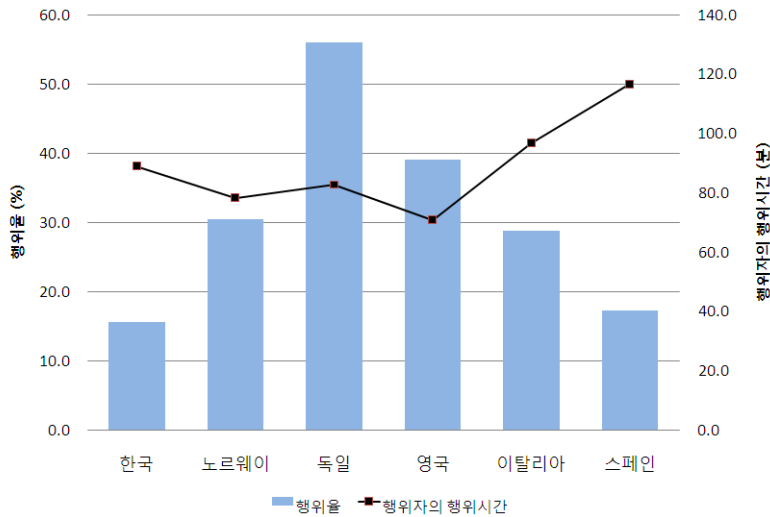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가족보살피기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기존의 생산 활동에의 참여행태와의 관련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지만 가족보살피기 활동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타 유럽 국가에 비하여 가장 높으면서도 동시에 가족보살피기 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도 그리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 중 가족보살피기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29분을 소요하고 있다. 이는 노인전체로 보면 평균 14분을 가족을 보살피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참여자가 평균 1시간 18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독일노인은 1시간 23분, 영국노인은 1시간 11분, 이탈리아 노인은 1시간 37분, 스페인노인은 1시간 57분을 소요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 스페인 노인의 경우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율은 낮지만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제일 높다. 전체 노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르웨이 24분, 독일노인의 46분, 영국노인과 이탈리아노인의 28분, 스페인은 20분으로 한국노인의 14

12) 한국의 경우 정원가꾸기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구에서의 주거환경상 정원가꾸기에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관리 항목별 참여율을 비교해보았으나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관리 등 모든 가족관리 항목에서 비교대상 국가 노인에 비하여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노인의 가족보살피기 활동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가족보살피기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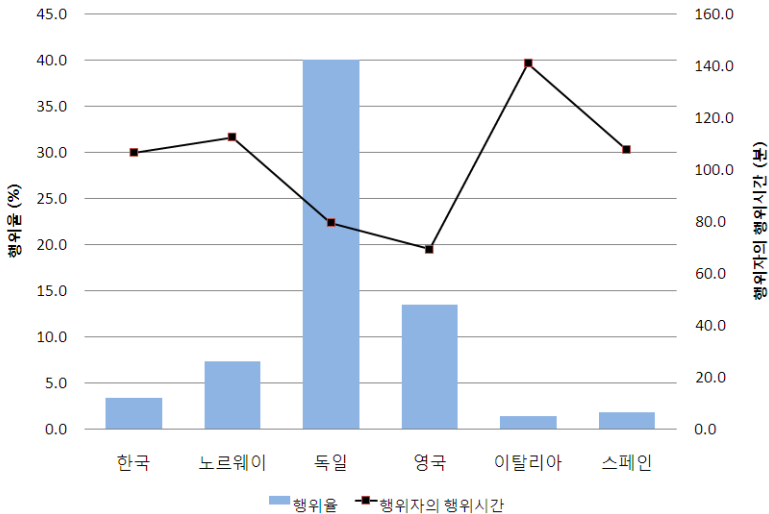
다. 봉사활동

한국노인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극히 소수인 3.4%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활동시간은 1시간 47분으로 일단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그 활동시간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유럽국가의 봉사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독일노인의 경우가 가장 행위율이 높아 40.1%에 달하고 있고, 영국이 13.5%, 노르웨이가 7.4%로 한국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1.4%, 스페인은 1.9%로 한국노인에 비하여 낮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노인은 경제활동과 같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 외에도 광의의 생산활동에 속하는 가정관리활동, 가족보살핌, 자원봉사활동 등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행위자의 평균시간을 비교해보면 이탈리아가 2시간 21분, 노르웨이의 경우는 1시간 53분이며, 스페인이 1시간 48분, 독일이 그 다음으로 1시간 20분, 영국이 1시간 10분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스페인이 1분, 이탈리아 2분으로 4분인 한국보다 낮은 반면, 노르웨이 8분, 영국노인이 9분이고 독일이 32분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별 차이가 극명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중간정도 수준이지만 활동참여율 자체가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자체는 매우 낮지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활동시간이 매우 높은 특정소수에 집중된 자원봉사활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노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특정소수 집중형으로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낮은 대신 자원봉사활동참여자의 활동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참여 및 봉사활동의 국가별 행위를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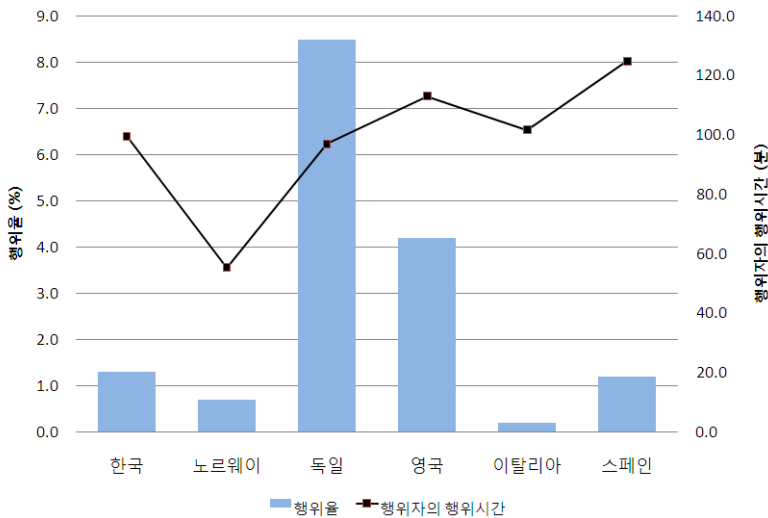
3. 기타활동 참여

가. 사적개발활동 참여

노인의 1.3%만이 사적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노인의 8.3%가 사적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이보다는 낮지만 4.1%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1.2%, 노르웨이는 0.7%, 이탈리아는 0.2%로 한국 노인보다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은 평균 1시간 40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사적개발 활동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노인의 평균 활동시간이 1시간 37분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영국노인의 경우도 사적개발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평균 활동시간이 1시간 24분으로 한국노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6] 사적개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스페인 노인의 경우는 2시간 5분으로 한국노인에 비하여 사적개발활동참여율은 낮지만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소요시간은 한국노인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노르웨이 노인은 1시간 52분을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행위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참여율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고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1시간 42분으로 낮은 편이다.

노인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보면 독일노인의 경우 8분, 영국노인 5분, 스페인 노인은 1.5분, 한국노인은 1분, 노르웨이 0.5분, 이탈리아 0.2분의 순서이다. 즉, 독일노인과 영국노인은 한국노인에 비하여 사적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 평생교육의 저변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스페인의 경우는 참여율 자체는 한국에 비하여 낮지만 참여하는 노인은 약 2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일단 사적개발활동을 하는 노인은 집중적인 개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교제활동 및 종교활동 참여

한국노인의 경우 70.8%가 교제활동을 하고 있고 교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1시간 37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1시간 9분을 소요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노인의 경우 84.9%의 행위율과 1시간 55분이라는 행위자의 평균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노인평균 1시간 37분에 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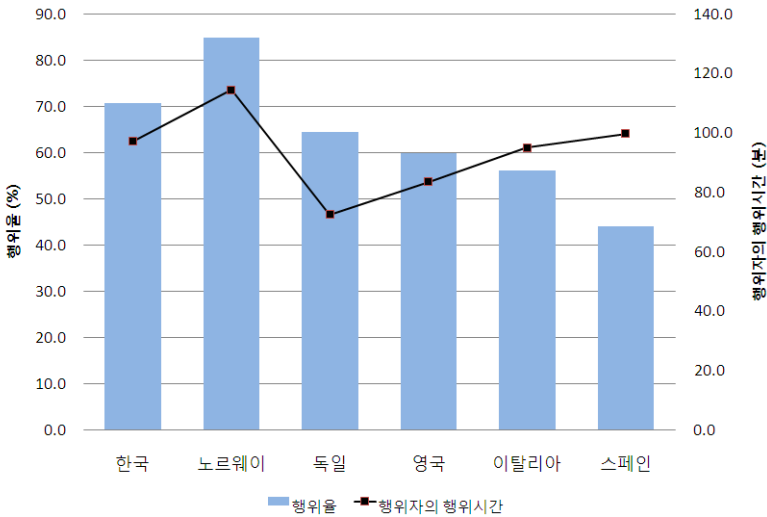
독일노인의 경우는 64.6%가 교제활동을 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행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보살피거나 자원봉사활동, 사적개발활동 등의 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율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교제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노인의 경우 1시간 13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전체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독일노인은 평균 47분의 교제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60.0%의 노인이 교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제행위참여자의

평균행위시간은 1시간 24분으로 전체노인 평균으로는 50분의 교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56.2%의 노인이 교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제활동참여 노인의 평균활동시간은 1시간 35분이다. 이는 전체노인으로 보면 평균 54분을 교제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가장 낮은 교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의 44.1%만이 교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 노인의 83.8%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교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노인은 평균 1시간 35분을 소요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림 3-7] 교제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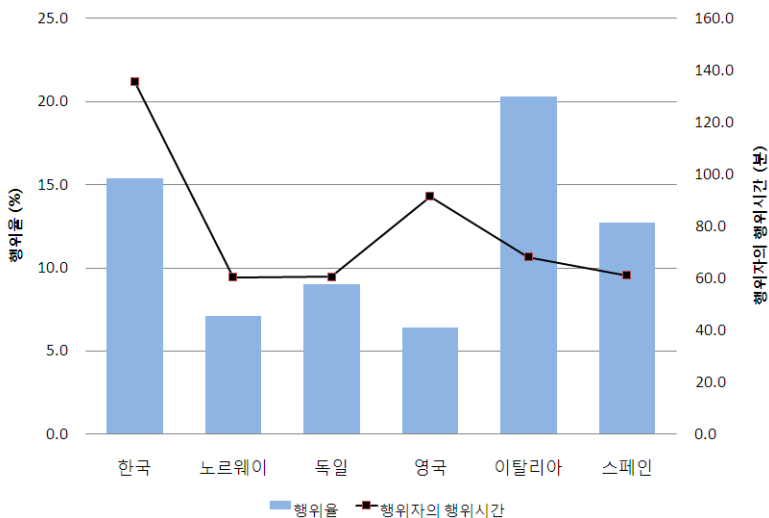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경우 노인의 15.4%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평균활동 시간은 2시간 16분이다. 이는 한국노인전체 평균으로는 31분에 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6.3%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활동참

여 노인의 평균행위시간은 1시간이다. 이는 노르웨이 전체 노인이 평균 4분을 종교활동에 소요하고 있는 규모이다. 한편 독일노인의 9.0%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소요시간은 1시간 1분으로 이는 독일노인전체가 평균적으로 5분을 종교활동에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노인의 종교활동 참여는 노르웨이 노인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독일과 노르웨이 중간 수준인 6.4%의 행위율을 보이고 있고 종교활동 참여 노인의 행위시간은 평균 1시간 32분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노인 기준으로 평균 6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탈리아 노인은 높은 종교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노인의 20.3%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노인의 경우 1시간 8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노인과 유사한 수준이며, 한국이나 영국노인에 비하여 낮은 행위시간이다. 스페인의 경우 참여율은 12.7%로 한국과 유사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종교활동 참여노인의 경우 평균 1시간 1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노인의 2시간 13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 3-8] 종교활동의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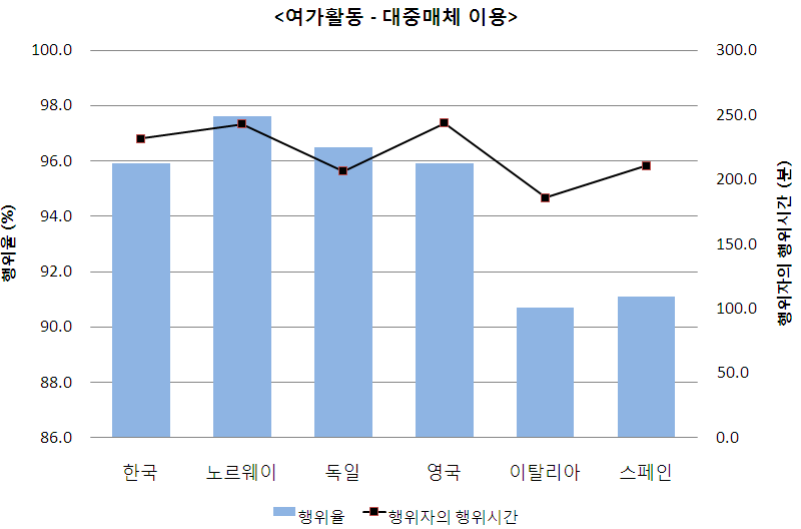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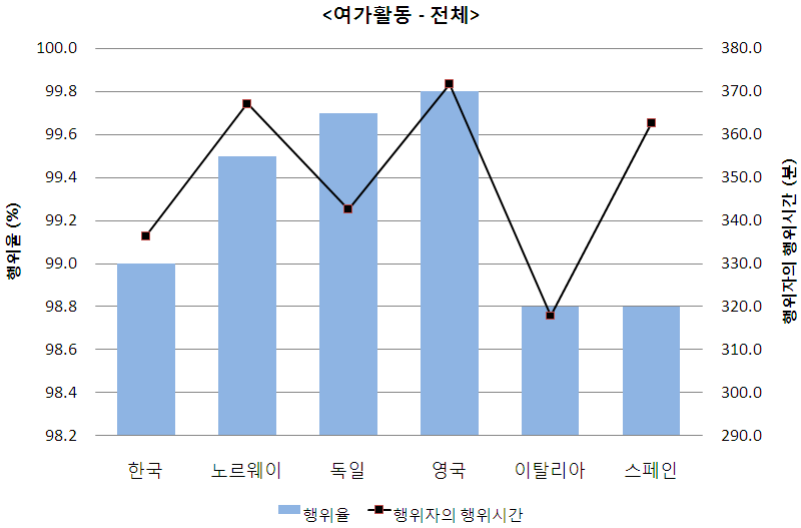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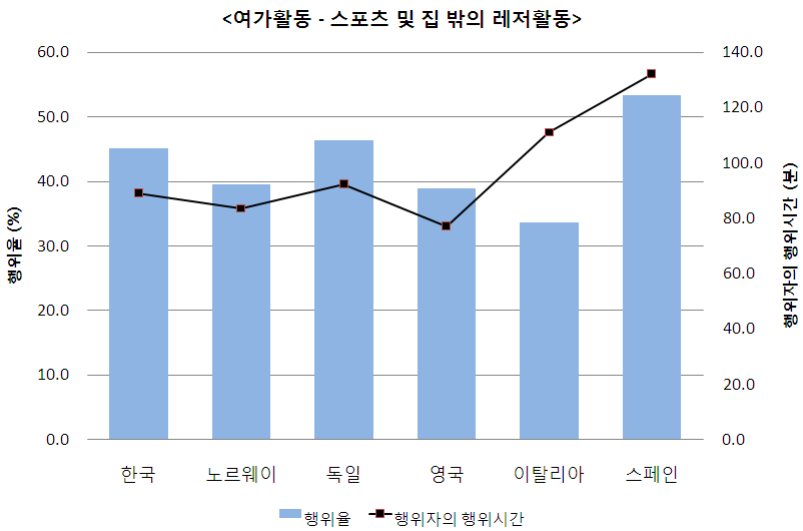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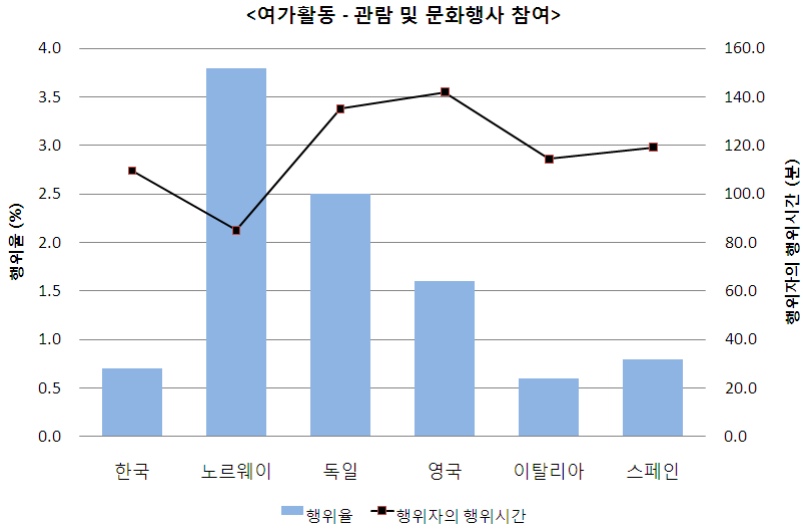
국가별 종교활동 행태를 정리하면, 이탈리아 노인은 종교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활동 참여율이 높은 행태를, 한국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율 자체는 중간 수준이지만 참여노인의 경우 매우 집중적인 활동참여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구분되어 진다. 반면 노르웨이 노인은 종교활동 관련 참여가 가장 낮은 국가로 파악되며 이는 교제활동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노르웨이 노인은 생산 활동 외의 활동에 있어 다른 국가의 노인들과는 차별화 되는 시간배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사회적 자본의 기초가 되는 타인과의 접촉에 생활배분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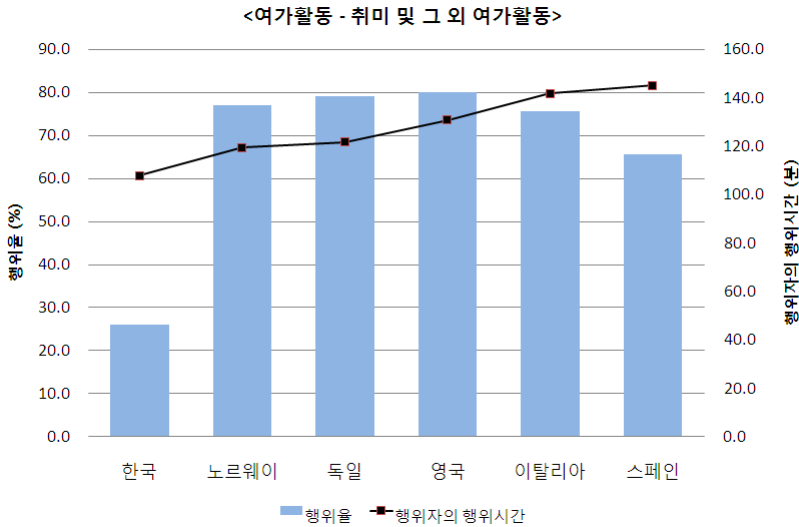
다.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대부분이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90% 수준으로 행위자의 평균 행위시간이 3시간과 3시간 30분이며 그 외의 국가는 95% 이상의 활동참여율과 4시간 전후의 행위시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의 경우 노르웨이가 3.8%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독일(2.5%), 영국(1.6%) 스페인(0.8%), 한국(0.7%), 이탈리아(0.6%)로 그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의 참여는 대체적으로 30~4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이 53.4%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는 유럽 국가들이 60~80%수준을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은 26.1%로 그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9] 여가활동종류 및 국가별 행위율 및 행위자의 행위시간 국제비교







제4절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화 및 국제비교

앞에서 살펴본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노인들의 생활체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¹³⁾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MTUS의 자료에서 나타난 노인의 활동을 유무급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사적개발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개인유지의 9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참여가 높은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과 생산적 활동 이외의 활동 중심인 여가활동형의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제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매우 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443.60분으로 타 유형에 비해 현저히

1)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와 MTUS의 국가데이터의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시간 데이터를 분석함. 그리고 주중과 주말의 생활시간의 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고려하여 주중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국가별 조사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2일 이상 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첫째날의 데이터만을 활용함.

경제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은 유형으로, 경제적 생산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경제적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를 비롯한 참여 및 봉사활동과 같은 비경제적 생산활동에는 가장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유형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이 타 유형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므로 ‘경제활동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정관리에 소요하는 시간이 긴 유형이다. 가정관리 시간은 322.40분이며 가정관리를 제외한 활동에는 타 유형에 비해 적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으로 가족보살피기에 투여되는 시간이 98.70으로 다른 세 유형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또한 이 유형은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18.97분으로 타 유형이 5분 미만인 것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이 유형은 가족돌보기와 교제활동, 종교활동이 타 유형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이 513.02분으로 타 유형이 여가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경제생산활동이나 가정관리 등의 활동에 비해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유형은 ‘여가활동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의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후 형태는 중년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경제활동형, 가정관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관리형,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타인을 돌보거나 돕는 특성을 갖고 있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노후를 보내는 여가활동형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노인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 노후생활유형화

(단위: 분, 명)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계
일	443.60	4.45	12.78	6.76	39.34
가정관리	72.28	322.40	119.05	90.17	185.63
가족보살피기	7.53	17.06	98.70	11.90	26.96
참여및봉사활동	2.50	3.52	18.97	2.99	5.62
사적개발활동	1.36	1.51	6.00	1.90	2.33
교제활동	29.90	37.88	130.99	36.29	51.00
종교활동	5.04	7.93	17.25	4.87	8.00
여가활동	168.89	251.37	232.40	513.02	340.00
개인유지	623.46	750.69	710.18	730.79	727.53
계(명)	7.5(1,302)	39.8(6,942)	15.4(2,683)	37.4(6,528)	100.0(17,455)

국가별 노인생활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한국은 경제활동형이 24.6%, 가정관리형이 20.6%,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이 19.2%, 여가활동 중심형이 35.6%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의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국가별 경제활동형의 비율은 노르웨이가 8.2%로 타 국가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며, 독일은 2.4%, 이탈리아가 3.4%, 스페인 1.6%, 영국 2.1%로 나타났다. 노르웨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비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가정관리형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별 평균이 41.5%인 것에 비해 한국은 20.6%로 분석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의 가정관리형은 49.8%, 독일 44.0%, 스페인 47.4%이며, 영국이 42.9%로 나타나며, 노르웨이가 약간 낮은 36.4%로 나타났다. 4개 유형 중 가정관리형의 비중이 평균 4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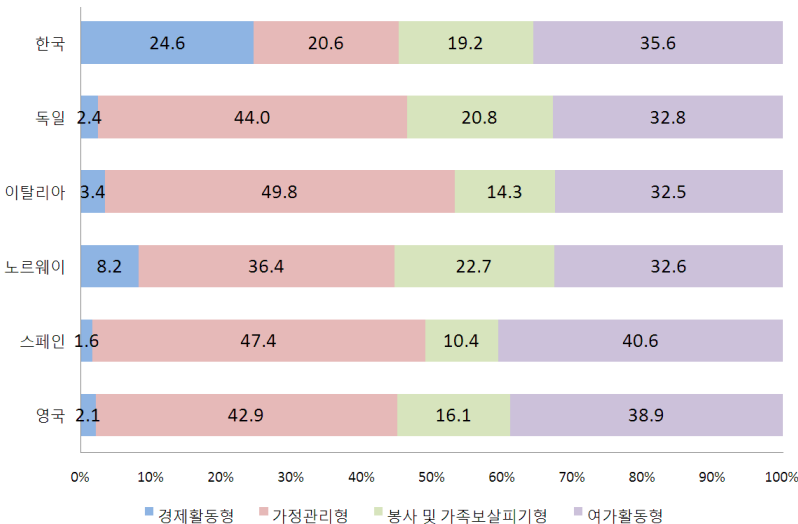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유형은 평균 14.2%이며,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22.7%로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이 20.8%, 한국이 19.2%로 높은 편에 해

당되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16.4%, 이탈리아가 14.3%, 스페인이 10.4%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형은 국가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페인이 40.6%로 가장 높으며, 영국 38.9%, 한국이 35.6%,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약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노인의 생활유형을 보면, 한국은 경제활동형이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특성을 보이며, 여가활동형을 제외한 경제활동, 가정관리,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의 세 유형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가정관리형과 여가활동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가 약 10~20%수준에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형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0] 국가별 노후생활유형



노인의 성별 노후생활유형은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남성노인의 여가활동형의 비중이 높으며, 이중 한국의 남성노인은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들 세 국가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여가활동형의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남성의 여가활동형의 비중이 여성의 여가활동형에 비해서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가정관리형에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율의 차이가 크고,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이 그 이외의 타 국가의 남녀노인의 생활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가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남성노인은 경제활동형이 30.3%, 가정관리형이 4.4%,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이 14.1%이며, 여가활동형이 51.2%로 경제활동형과 여가활동형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여성노인은 경제활동형이 21.0%, 가정관리형이 30.8%,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이 22.4%이며, 여가활동형이 25.8%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가정관리형과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형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형은 남성노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타 국가의 여성노인에 비해 볼 때 높게 나타났다.

독일의 남성노인은 가정관리형의 비중은 여성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은 남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성별차이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노르웨이 남성노인의 29.3%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국가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⁴⁾.

14)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MTUS의 가족보살피기 활동범주에는 가족돌봄이외의 가정관리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결과 해석에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함.

〈표 3-8〉 국가별 노인의 성별 노후생활유형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계
한국	남	30.3	4.4	14.1	51.2	100.0(1,215)
	녀	21.0	30.8	22.4	25.8	100.0(1,929)
독일	남	4.2	28.6	25.5	41.6	100.0(377)
	녀	0.9	56.4	17.1	25.6	100.0(468)
이탈리아	남	6.6	24.6	18.6	50.2	100.0(1,285)
	녀	1.0	69.1	11.1	18.9	100.0(1,679)
노르웨이	남	10.0	23.3	29.3	37.3	100.0(150)
	녀	6.4	50.4	15.6	27.7	100.0(141)
스페인	남	2.7	23.2	12.9	61.2	100.0(2,882)
	녀	0.9	65.4	8.6	25.2	100.0(3,868)
영국	남	3.3	31.5	19.6	45.7	100.0(337)
	녀	1.2	51.8	13.4	33.6	100.0(434)
계	남	10.0	20.2	16.9	52.9	100.0(1,215)
	녀	5.6	54.0	14.2	26.2	100.0(1,929)

국가별 노후생활유형을 노인의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표 3-9>과 같다. 노인의 연령을 75세를 기준으로 생활유형의 변화가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계층은 그 이전 노인연령층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형이 감소하면서 여가활동형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독일은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의 유형의 비율이 감소하고 여가활동형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가정관리형이 감소하고 여가활동형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며, 노르웨이는 경제활동형과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되, 가정관리형과 여가활동형이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스페인은 가정관리형이 감소하면서 여가활동형이 증가하고, 영국은 연령에 따른 노후 활동유형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미만 노인의 경제활동형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국과 노르웨이는 75세 이후 경제활동형의 비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두 국가의 75세 이후 노인의 생활유형의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가정관리형과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여가활동형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노인의 경우 가족보살피기나 가정내 가

사노동의 참여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가활동형으로 집중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의 경우 75세 이후의 타 유형에 비해 적극적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형과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의 유형은 감소하고, 가정관리형과 여가활동형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연령증가에 따라 여성노인은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에서 가정관리형으로 또는 여가활동형으로의 변화, 남성노인은 경제활동형에서 여가활동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9〉 국가별 노인의 연령별 노후생활유형 분석결과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 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계
한국	75세미만	29.7	20.8	19.2	30.3	100.0(2,176)
	75세이상	13.0	20.1	19.3	47.5	100.0(968)
독일	75세미만	3.4	45.4	22.9	28.4	100.0(582)
	75세이상	0.0	41.1	16.3	42.6	100.0(263)
이탈리아	75세미만	4.7	53.7	14.8	26.8	100.0(1,753)
	75세이상	1.6	44.1	13.7	40.6	100.0(1,211)
노르웨이	75세미만	10.0	33.5	26.2	30.3	100.0(221)
	75세이상	2.9	45.7	11.4	40.0	100.0(70)
스페인	75세미만	2.4	50.8	11.8	35.0	100.0(4,039)
	75세이상	0.5	42.3	8.3	48.9	100.0(2,711)
영국	75세미만	2.7	42.6	13.8	37.2	100.0(481)
	75세이상	1.0	43.4	16.1	41.7	100.0(290)
계	75세미만	10.2	41.5	16.5	31.9	100.0(10,827)
	75세이상	3.1	37.0	13.5	46.4	100.0(6,628)

노인의 생활유형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은 농촌지역 거주노인은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50.1%로 높은 반면, 도시지역 거주노인은 여가활동형이 41.8%, 가정관리형 23.3%,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21.1%로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다른 노후 생활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또

한 한국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높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여가활동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가정관리형과 가족보살피기형에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도시와 농촌이 모두 낮고, 도시는 여가활동형, 농촌은 가정관리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여가활동형의 비중이 높으며, 도시지역에서 가정관리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유형은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가에 따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국가별 노인의 거주지역(도시/농촌)별 노후생활유형 분석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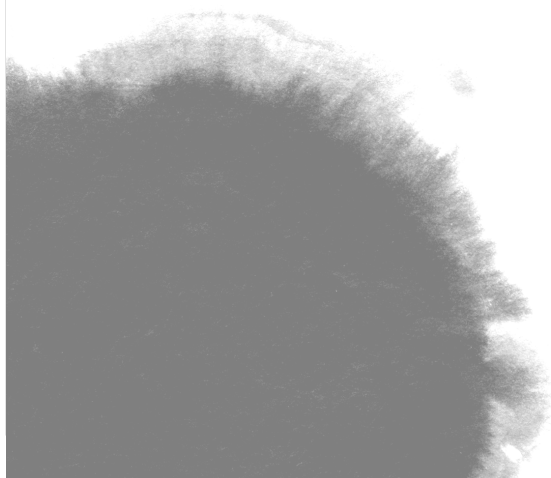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계
한국	도시	13.8	23.3	21.1	41.8	100.0(2,209)
	농촌	50.1	14.2	14.9	20.9	100.0(935)
이탈리아	도시	2.6	48.5	14.2	34.7	100.0(1,844)
	농촌	4.7	51.9	14.6	28.8	100.0(1,120)
노르웨이	도시	6.9	34.7	22.2	36.1	100.0(216)
	농촌	12.0	41.3	24.0	22.7	100.0(75)
스페인	도시	1.5	44.3	10.3	43.9	100.0(3,425)
	농촌	1.8	50.6	10.5	37.1	100.0(3,325)
영국	도시	2.0	43.9	38.0	38.0	100.0(693)
	농촌	3.3	33.3	11.7	51.7	100.0(60)

주: 1) 도시/농촌의 구분 변수는 한국은 비농가와 농가를 활용,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도시(urban/suburban), 농촌(rural/semi-rural)을 활용함.

2) 독일은 도시/농촌 변수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04

노인의 생애활동 참여 실태



제4장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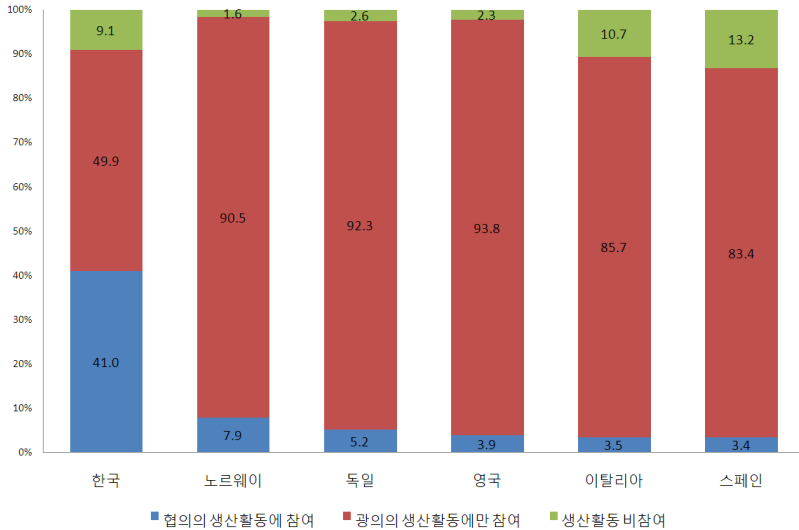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5개국의 노인들과 생산활동 참여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 절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노인을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는 노인,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협의 및 광의의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으로 구분된다.

한국노인의 41.0%가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자이며, 49.9%가 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9.1%는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즉 약 91%의 노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총 6시간 29분을 생산적 활동에 쓰고 있으며, 이중 67.4%가 광의의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산활동을 협의로 정의하는가 광의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 현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림 4-1]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국제비교



이러한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는 남자노인이 54.3%로 여자노인의 41.6%보다 12.7%포인트 높다. 또한 협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남자노인은 총 5시간 38분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노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행위시간이 높아 생산적 활동에 7시간 15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참여를 하는 남자노인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 중 노동시장 참여활동이 82%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53.4%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노인의 경우 다수가 노동시장참여와 동시에 가사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협회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여자노인의 경우 월등히 높다. 동비율이 남자노인은 34.3%이지만 여자노인은 60.2%로 남자노인에 비하여 약 26%포인트가 높고 여자노인의 협회의 생산활동 행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자노인이 4.2%로 남자노인의 16.4%보다 월등히 낮다. 또한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여자노인의 평균생산활동 총 행위시간은 3시간 36분으로 남자노인의 1시간 54분의 약 2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율이 감소하여 65~69세군은 49.4%, 70~74세군은 40.8%, 75세 이상은 29.6%이다. 반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후기노인층에서 높게 나타나,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55.8%이다. 어떠한 형태의 생산활동에도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 또한 후기노인에게서 높아, 각 연령군별로는 5.6%, 8.4%, 14.7%이다. 이는 후기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제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요한 연령적 분기점이 75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농가노인의 80.9%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4.3%는 협의의 생산활동은 아니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어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4.7%에 불과하다. 비농가의 경우는 28.6%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61.0%가 협의의 생산활동은 아니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직업분포에도 반영되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7.7%에 달하고 있다(표 4-2 참조).

결과적으로 비농가 노인의 10.4%가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즉 농가는 절대다수의 노인이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비농가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행위자의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참여에는 농가노인이,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도시지역의 노인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지만 실제 생산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에는 교육수준에 따

른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별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는 한국노인이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활동 외의 자신의 성숙을 위한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주와의 관계와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 생산활동에의 참여율이 낮고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사별·이혼상태인 노인이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아 62.1%에 달하고 있다.

주택소유여부별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어떠한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9.5%와 7.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4-1〉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A+B)	(A)	(B)		(C)	
전체	41.0(388.8)	8.6	32.4	(67.4)	49.9(188.1)	9.1
성별						
남자	49.2(338.0)	19.7	29.5	82.0	34.3(114.4)	16.4
여자	35.6(435.4)	1.3	34.3	53.4	60.2(216.0)	4.2
나이						
65세~69세	49.4(431.2)	11.0	38.4	70.2	45.1(211.4)	5.6
70세~74세	40.8(366.6)	9.0	31.8	68.1	50.8(194.0)	8.4
75세 이상	29.6(318.3)	4.9	24.6	59.9	55.8(156.4)	14.7
농가구분						
농가	80.9(401.8)	16.2	64.7	70.3	14.3(175.1)	4.7
비농가	28.6(377.2)	6.3	22.3	64.9	61.0(189.1)	10.4
교육정도						
무학	42.7(400.4)	5.5	37.2	60.8	49.8(187.9)	7.5
초등학교	43.0(379.2)	9.6	33.4	69.6	49.1(199.6)	7.9
중학교	37.0(373.4)	12.2	24.7	76.0	49.6(180.0)	13.5
고등학교	35.9(397.5)	12.4	23.5	79.8	52.0(185.0)	12.2
대학 이상	33.1(340.6)	17.0	16.1	81.7	51.2(143.5)	15.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9.9(372.9)	13.5	36.4	73.3	42.3(164.1)	7.7
배우자	41.6(448.5)	1.4	40.2	50.3	52.6(251.5)	5.8
부모(장인,장모,시부모)	23.3(372.9)	4.3	19.0	65.0	62.2(179.8)	14.5
조부모	20.1(311.5)	2.3	17.8	60.3	70.8(202.3)	9.1
기타	32.9(532.0)	13.7	19.1	75.1	67.1(190.6)	0.0
혼인정도						
미혼	25.6(230.0)	0.0	25.6	30.2	74.4(165.0)	0.0
유배우	48.5(384.3)	13.4	35.1	71.5	41.0(187.7)	10.5
사별,이혼	30.8(398.7)	2.1	28.7	58.6	62.1(188.5)	7.1
주택 소유여부						
있음	44.5(386.3)	9.5	35.0	67.4	46.0(188.8)	9.5
없음	25.3(408.0)	4.6	20.8	67.5	67.2(185.9)	7.4

〈표 4-2〉 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의 직업분포

직업	비율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관리자	2.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
사무종사자	1.8
서비스 판매	12.1
농림어업 숙련업	57.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단순노무, 기타종사자	20.4
전체	100.0

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중 직업이 파악된 비율은 88%임.

제2절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국제비교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7.9%이지만 90.5%가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생산활동 비참여자는 1.6%에 불과하다. 독일은 5.2%의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2.2%가 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서 2.6%만이 생산활동 비참여자이다. 영국노인의 3.9%는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93.8%는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 생산활동 비참여자는 2.3%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보면 그 구성이 각각 3.5%, 85.7%, 10.7%이며, 스페인은 3.4%, 83.4%, 13.2%로 생산활동 비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반면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의 경우 노르웨이, 영국과 독일이 높은데,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

도가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은퇴가 자리잡은 국가이지만 다양한 생산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 않은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와 더불어 7.9%의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동참여를 하고 있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1.6%에 불과하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 노인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아 생산활동 비참여노인의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즉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장 생산적 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며 노르웨이가 생산적 노화의 달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의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노인의 특성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노인의 성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실태에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과 같이 남녀간의 차이가 매우 적은 국가와 월등하게 남자 노인의 생산활동 비참여율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협의의 생산활동자의 소요시간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참여시간의 남녀간 차이는 한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은 층에서 낮지만, 연령군별 광의의 생산활동에서의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후기노인에게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65~69세 군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비율이 15.2%로 높은 편인데 이는 노르웨이가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OECD, 2009a).

지역별로 생산활동 참여행태에 있어서는 국가별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는 도시지역은 광의의 생산활동을 농어촌지역은 협의

의 생산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반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거주 노인에게서 협의 및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의 실제 생산활동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참여시간이 많다.

교육수준별로 5개국의 실태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은 높고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은 낮으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낮고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한국과 대별되는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 노년기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은 생산활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하고만 생활하는 경우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는 적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3〉 노르웨이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A+B)	(A)	(B)		(C)	
전체	7.9(435.1)	0.5	7.4	68.4	90.5(242.5)	1.6
성						
남자	11.8(431.4)	0.7	11.2	69.3	86.2(220.1)	2.0
여자	4.7(442.7)	0.4	4.3	66.4	94.0(259.5)	1.3
연령						
65~69	15.2(464.5)	0.3	14.9	67.1	84.0(239.7)	0.8
70~74	3.1(435.0)	0.0	3.1	79.9	94.7(251.2)	2.2
75~	4.8(336.3)	0.9	3.9	65.8	93.4(236.7)	1.8
지역						
도시	7.2(425.3)	0.1	7.1	68.9	91.7(230.2)	1.1
농어촌	9.6(452.5)	1.0	8.6	67.4	87.8(272.7)	2.6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3.8(366.9)	0.5	3.6	69.1	93.2(247.5)	2.7
중등교육	9.2(450.3)	0.7	8.6	65.7	89.9(246.7)	0.9
중등교육 이상	13.0(449.1)	0.0	13.0	72.5	85.9(223.3)	1.1
가구형태						
1인가구	8.2(480.2)	0.0	8.2	71.9	90.8(242.0)	1.0
노인부부가구	6.3(430.5)	0.5	5.8	65.3	92.2(242.2)	1.5
부부 + 기타 가구원	22.1(414.8)	0.0	22.1	66.9	76.5(250.9)	1.5
기타 가구	6.5(10.0)	6.5	0.0	100.0	83.9(237.5)	9.7
주택소유여부						
소유	-	-	-	-	-	-
렌트	-	-	-	-	-	-
기타	-	-	-	-	-	-
가구소득						
하위 25%	6.0(464.4)	0.0	6.0	64.5	92.2(245.8)	1.8
중위 50%	9.4(415.9)	1.1	8.3	69.0	89.2(243.0)	1.4
상위 25%	19.0(397.5)	0.0	19.0	79.0	81.0(200.6)	0.0

〈표 4-4〉 독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A+B)	(A)	(B)		(C)	
전체	5.2(447.0)	0.3	4.9	57.3	92.2(277.9)	2.6
성						
남자	8.3(432.4)	0.7	7.6	65.7	88.8(248.5)	2.9
여자	2.8(481.0)	0.0	2.8	37.7	94.9(299.4)	2.4
연령						
65~69	8.2(455.6)	0.6	7.6	61.5	90.5(293.1)	1.3
70~74	5.5(444.1)	0.1	5.4	49.8	91.8(283.2)	2.7
75~	0.8(342.5)	0.0	0.8	43.3	95.1(253.4)	4.1
지역						
도시	-	-	-	-	-	-
농어촌	-	-	-	-	-	-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3.1(435.1)	0.0	3.1	39.9	93.6(288.5)	3.3
중등교육	4.3(434.8)	0.1	4.2	52.9	92.8(272.4)	2.9
중등교육 이상	8.0(464.7)	0.9	7.2	65.8	90.6(278.2)	1.3
가구형태						
1인가구	4.6(479.4)	0.1	4.5	55.4	95.0(281.9)	0.4
노인부부가구	4.1(384.7)	0.3	3.8	54.2	93.8(275.6)	2.1
부부 + 기타 가구원	12.3(453.8)	2.1	10.2	78.1	81.8(291.6)	5.9
기타 가구	8.8(535.9)	0.0	8.8	52.6	81.2(271.0)	9.9
주택소유여부						
소유	7.0(468.6)	0.4	6.7	57.0	89.3(282.4)	3.7
렌트	3.1(415.4)	0.1	3.0	52.8	95.5(270.7)	1.4
기타	4.2(387.5)	1.1	3.2	59.5	95.2(294.3)	0.5
가구소득						
하위 25%	4.1(450.7)	0.0	4.1	49.2	95.1(284.6)	0.8
중위 50%	4.8(432.1)	0.3	4.5	59.6	92.6(279.8)	2.6
상위 25%	8.7(461.3)	0.4	8.3	52.6	85.5(272.6)	5.8

〈표 4-5〉 영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A+B)	(A)	(B)		(C)	
전체	3.9(459.9)	0.4	3.6	59.7	93.8(257.1)	2.3
성						
남자	6.1(450.5)	0.6	5.4	62.1	91.2(234.7)	2.7
여자	2.3(478.6)	0.1	2.2	54.8	95.7(273.1)	1.9
연령						
65~69	7.6(487.7)	0.5	7.1	61.7	90.6(270.0)	1.8
70~74	3.4(424.1)	0.6	2.9	54.1	95.0(271.2)	1.5
75~	1.6(419.7)	0.1	1.5	61.1	95.2(238.3)	3.2
지역						
도시	3.9(465.4)	0.4	3.5	59.8	93.9(258.6)	2.3
농어촌	4.5(438.1)	0.0	4.5	55.7	94.9(247.2)	0.6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8(490.7)	0.2	2.6	64.9	94.5(253.0)	2.7
중등교육	4.3(413.1)	0.7	3.8	54.6	93.8(266.2)	1.8
중등교육 이상	7.6(426.9)	0.4	7.0	50.0	91.6(263.3)	1.0
가구형태						
1인가구	2.3(429.0)	0.0	2.3	46.0	96.6(255.2)	1.1
노인부부가구	4.2(455.4)	0.4	3.8	61.0	93.4(262.6)	2.4
부부 + 기타 가구원	12.4(504.1)	2.3	10.1	71.0	83.3(232.4)	4.3
기타 가구	1.2(400.0)	0.0	1.2	37.5	91.1(244.1)	7.7
주택소유여부						
소유	4.7(458.6)	0.3	4.4	59.8	93.6(265.1)	1.7
렌트	1.7(469.8)	0.2	1.5	55.5	94.2(235.7)	4.1
기타	0.0(0.0)	0.0	0.0	-	100.0(271.2)	0.0
가구소득						
하위 25%	0.9(480.6)	0.0	0.9	54.0	96.8(254.5)	2.3
중위 50%	7.1(458.4)	0.5	6.7	59.7	91.3(264.2)	1.6
상위 25%	21.5(440.8)	1.1	20.4	56.8	77.4(257.5)	1.1

〈표 4-6〉 이탈리아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A+B)	(A)	(B)		(C)	
전체	3.5(484.6)	1.2	2.3	83.2	85.7(275.8)	10.7
성						
남자	6.7(466.2)	2.8	3.9	87.9	78.1(189.7)	15.1
여자	1.3(553.4)	0.1	1.2	65.7	91.1(328.5)	7.6
연령						
65~69	6.6(519.6)	2.1	4.5	82.5	88.3(307.7)	5.1
70~74	2.7(460.5)	1.2	1.5	87.1	90.4(288.1)	6.9
75~	1.8(414.9)	0.6	1.3	81.2	80.7(240.7)	17.5
지역						
도시	3.1(465.9)	0.9	2.1	81.0	85.6(270.1)	11.4
농어촌	4.4(506.4)	1.7	2.6	85.7	85.9(285.3)	9.7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5(492.6)	0.9	1.6	84.0	86.0(280.5)	11.5
중등교육	5.3(493.2)	2.4	3.0	85.5	86.1(264.6)	8.5
중등교육 이상	15.7(437.1)	2.2	13.5	75.3	77.2(237.4)	7.1
가구형태						
1인가구	1.9(488.0)	0.1	1.7	72.4	90.0(262.6)	8.1
노인부부가구	3.1(485.9)	1.2	1.9	82.9	86.5(276.3)	10.4
부부 + 기타 가구원	7.0(478.9)	2.9	4.2	86.6	79.8(276.5)	13.1
기타 가구	1.7(520.4)	0.3	1.3	84.3	84.8(308.4)	13.6
주택소유여부						
소유	4.0(479.2)	1.5	2.5	83.3	85.3(278.5)	10.7
렌트	1.5(579.1)	0.2	1.3	84.9	87.5(267.4)	11.1
기타	2.6(471.4)	0.4	2.2	79.2	86.3(262.8)	11.1
가구소득						
하위 25%	-	-	-	-	-	-
중위 50%	-	-	-	-	-	-
상위 25%	-	-	-	-	-	-

〈표 4-7〉 스페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A+B)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회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협회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회의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A+B)	(A)	(B)		(C)	
전체	3.4(392.8)	0.7	2.7	58.7	83.4(254.9)	13.2
성						
남자	5.1(353.9)	1.6	3.5	69.6	73.6(179.0)	21.3
여자	2.2(460.6)	0.1	2.1	39.7	90.7(300.9)	7.1
연령						
65~69	5.4(420.6)	1.4	4.0	63.7	86.4(286.0)	8.2
70~74	3.5(405.0)	0.6	2.9	56.6	86.8(264.9)	9.7
75~	1.7(302.2)	0.3	1.4	48.4	78.5(218.6)	19.8
지역						
도시	3.2(377.3)	0.6	2.6	54.6	84.3(245.2)	12.5
농어촌	3.7(407.2)	0.9	2.8	62.5	82.4(265.5)	13.9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5(389.6)	0.5	2.1	57.5	83.2(259.6)	14.3
중등교육	4.3(387.9)	0.9	3.3	56.3	85.6(250.2)	10.2
중등교육 이상	12.0(407.5)	3.4	8.4	65.1	78.2(208.7)	10.0
가구형태						
1인가구	2.4(431.5)	0.1	2.3	52.1	92.6(240.6)	5.0
노인부부가구	2.9(367.8)	0.5	2.4	52.5	84.6(251.7)	12.5
부부 + 기타 가구원	4.9(393.7)	1.4	3.5	66.8	75.7(264.2)	19.3
기타 가구	3.0(416.5)	0.7	2.3	54.1	83.7(269.2)	13.3
주택소유여부						
소유	3.4(389.3)	0.7	2.6	58.6	83.5(255.9)	13.1
렌트	3.5(463.7)	0.7	2.9	64.4	81.9(242.1)	14.5
기타	4.4(345.5)	0.4	4.0	51.8	83.3(261.0)	12.4
가구소득						
하위 25%	2.0(365.8)	0.2	1.8	51.9	86.0(253.2)	12.0
중위 50%	4.3(401.5)	1.0	3.3	57.2	81.1(259.9)	14.6
상위 25%	9.4(417.2)	2.9	6.5	69.9	74.6(246.7)	15.9

제3절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와 기타 활동의 관계

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와 다른 활동에의 참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참여 여부별 각 활동항목별 참여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학습활동 모두에 있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인 경우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73.9%인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86.5%의 노인이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 행위율의 차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적다. 이는 협의의 생산활동과 광의의 생산활동의 동시다발적인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은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산활동에 좀 더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학습활동도 빈번히 하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봉사활동이나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행위율이 높다. 스페인의 경우는 가정관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참여노인에게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행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국가별로 경제활동참여와 광의의 생산활동참여의 관계는 다양한 것이다.

〈표 4-8〉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기타 활동종류별 비율 및 활동시간

(단위: %, 분)

국가명	경제활동 참여여부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비율(시간)	가정관리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한국	전체	83.1 (171.9)	80.8 (114.4)	14.8 (98.2)	3.8 (109.1)	1.2 (60.4)	70.6 (98.1)	14.4 (132.8)
	참여	73.9 (116.2)	71.3 (106.5)	10.2 (58.8)	3.3 (110.9)	0.4 (65.6)	64.5 (82.6)	7.9 (102.9)
	비참여	86.5 (189.1)	84.2 (168.9)	16.5 (94.5)	4.0 (104.5)	1.4 (106.0)	72.9 (103.0)	16.7 (138.0)
노르웨이	전체	97.8 (231.4)	97.0 (196.1)	32.3 (83.4)	7.3 (119.6)	0.5 (62.5)	83.8 (113.4)	6.3 (57.6)
	참여	94.7 (124.5)	94.7 (110.4)	21.3 (49.4)	4.0 (70.0)	0.0 (0.0)	68.0 (77.6)	4.0 (70.0)
	비참여	98.2 (242.4)	97.3 (205.0)	33.5 (85.7)	7.7 (122.4)	0.6 (62.5)	85.5 (116.4)	6.5 (56.7)
독일	전체	96.6 (277.3)	93.5 (196.0)	54.9 (81.5)	40.3 (79.5)	8.3 (97.4)	63.9 (73.8)	9.7 (62.8)
	참여	94.8 (200.6)	84.4 (143.4)	51.4 (69.9)	39.3 (66.9)	9.2 (75.0)	50.9 (48.2)	8.1 (55.0)
	비참여	96.7 (281.2)	93.9 (198.4)	55.0 (82.0)	40.4 (80.1)	8.2 (98.7)	64.6 (74.9)	9.8 (63.1)
영국	전체	96.6 (249.1)	95.6 (209.7)	38.7 (71.5)	12.4 (66.1)	4.1 (106.1)	59.9 (87.0)	7.7 (94.8)
	참여	90.0 (188.1)	88.2 (149.7)	37.3 (61.7)	17.3 (48.4)	8.2 (72.2)	50.0 (68.5)	3.6 (102.5)
	비참여	96.9 (251.1)	95.9 (211.7)	38.8 (71.8)	12.2 (67.0)	3.9 (108.7)	60.3 (87.6)	7.9 (94.6)
이탈리아	전체	87.0 (258.5)	84.6 (232.7)	27.8 (94.5)	1.3 (133.5)	0.2 (96.2)	57.1 (97.2)	25.7 (68.3)
	참여	65.0 (127.0)	59.9 (118.0)	18.1 (58.0)	0.7 (55.0)	1.1 (86.7)	37.5 (75.4)	13.7 (55.5)
	비참여	87.7 (261.6)	85.3 (235.2)	28.1 (95.3)	1.3 (134.9)	0.2 (97.8)	57.7 (97.6)	26.1 (68.6)
스페인	전체	85.5 (252.8)	83.9 (229.8)	16.9 (117.8)	1.9 (106.8)	1.1 (123.4)	44.1 (100.8)	13.2 (61.2)
	참여	78.6 (193.8)	76.8 (170.7)	17.8 (87.1)	2.7 (90.0)	3.0 (110.0)	38.6 (79.5)	13.6 (55.6)
	비참여	85.8 (254.7)	84.2 (231.7)	16.9 (118.9)	1.9 (107.6)	1.1 (124.7)	44.3 (101.5)	13.2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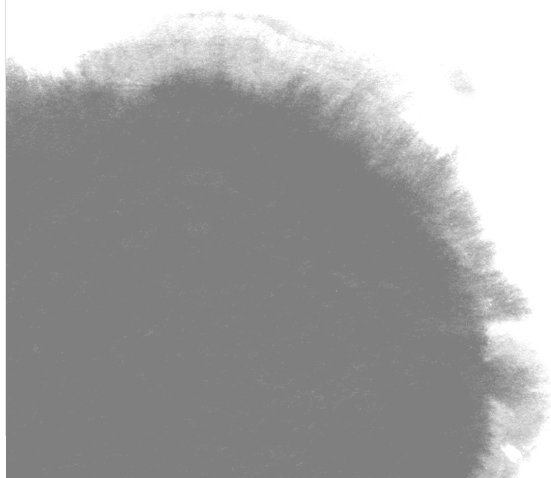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주: 여가활동은 대부분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

한편,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활동 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협의와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영국, 스페인의 경우 50% 수준인 반면, 노르웨이와 한국은 60%, 이탈리아는 80%로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생산활동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60대 노인의 경우 그 이상 연령대에 비하여 생산활동 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영국은 예외)는 공통점이 있다. 그 외에 지역과 같은 다른 특성별 공통된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05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제5장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논의된 한국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봄으로써 노인이 우리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을 가시화하고 그 가치를 계량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시험적인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제1 절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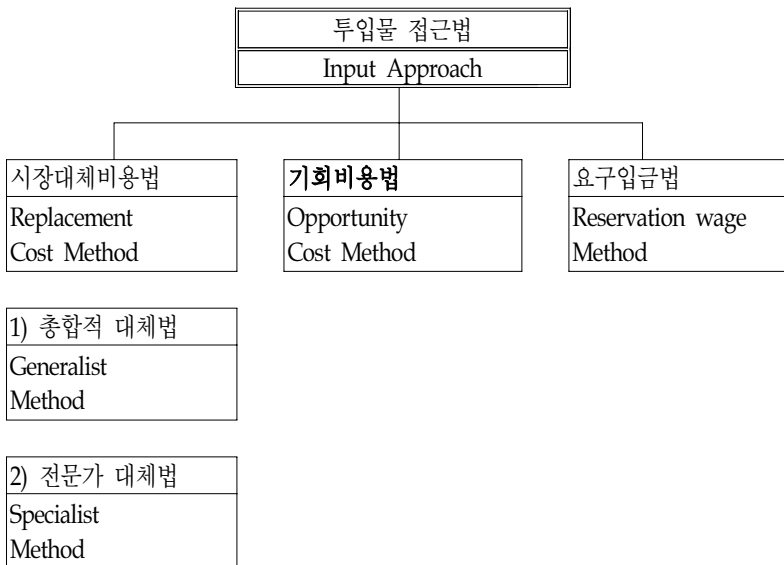
1. 다양한 평가방법 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행하는 유급 및 무급의 생산활동 참여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활용된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노인이 수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민계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SNA경제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려는 시도에 활용된 방법에는 크게 투입물 접근법(input approach)과 산출물 접근법(output approach)이 있으며, 두 접근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문숙재, 2001). 산출물 접근법은 요구되는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입물 접근법에는 시장대체비용법(Market Replacement Cost Method), 총합적 대체법(Generalistic Method), 전문가대체법(Specialist Method),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요구임금법(Reservation wage Method)이 있으며, 개별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었다(권태희, 2006). 가장 활발한 가치 산출작업이 이루어진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의 경우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액수가 제시되었다. 즉,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활용한 자료의 특성(조사시기, 지역 및 대상 등)과 가치평가 방법 및 적용 임금률에 따라서 상이한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었다.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가 제시될 수 있기보다는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산출방법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5-1]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비SNA 생산활동의 가치 평가방법



이러한 접근방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회비용법: 비SNA 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사회구성원의 숙련과 기회임금에 따라 다양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요구임금법: SNA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SNA 생산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의 경우 비취업 주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즉, 주부들의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지만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3) 총합적 대체법: 평가대상이 되는 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직업의 임금수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가계에서 주부가 행하는 모든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상응할만한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임금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체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대체직을 가정부나 파출부로 선정할 경우 과소평가의 문제가 지적되며, 한편 총괄관리자의 임금을 이용할 경우 직종 자체의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과대평가된다.
- (4) 전문가 대체법: 비SNA 활동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대체 직종의 시장 임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활동을 각 작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 임금률을 적용시켜 전체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업은 각 영역별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작업과 비교된다. 주부는 관리자, 구매자, 간호원, 요리

사, 세탁부 등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전문적인 노동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본다. 대체되는 전문가나 자격조건에 대한 것들은 각 나라의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가장 활발한 경제적 가치산출 작업이 이루어진 가사노동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활용된 자료 및 대체직업의 설정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고 있다. 최근 작업인 권태희(2006)의 경우, 전체여성의 무급노동 가치는 총기회비용법에 의할 경우 144.7조원으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총합대체비용법에 의할 경우 98조원으로 최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작업을 수행한 김태홍 외(2007)의 경우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한국인의 봉사활동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표 5-1〉 국내 연구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과 적용 임금률

연구	방법	조사 시기, 지역·대상	적용 임금률	전문가 대체비용	총합적 대체비용	기회 비용
김애실 (1985)		1985년 서울 전업주부 66명	1983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 시간당 임금치수를 81-83년의 임금치수를 21.8%를 83-85년 임금치수로 가정, 85년 8가지로 환산	- 방법 ① - 여성근로자임금률	- 방법 ① - 방법 ② - 파출부: 대체비용 - 여성근로자 임금률	- 방법 ③ - 설문결과, 응답자 임금 평균 값 이용
정영금 (1989)		1989년 서울 전업주부 477명	1987년 평균임금에 대(對)전년 임금상승률 9.8% 가산하여 이용	- 방법 ① - 전체 임금률 이용	- 방법 ①-1 - 설문결과, 실제대체비용을 이용	- 방법 ④ - 여성 근로자임금률
김선희 (1991)		1988년 부산 전업주부 572명	1988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	- 방법 ① - 여성근로자임금률	- 방법 ①-1 - 방법 ②-1 - 파출부 : 사회기관 협정임금 - 여성근로자 임금률	- 방법 ④ - 여성 근로자임금률
문숙재 정영금 (1991)		1990년 서울 & 부산 전업주부 508명	1988년 평균임금에 대(對)전년 임금상승고려 90년 임금률로 환산 이용	- 방법 (1) - 전체 임금률 이용	- 방법 ①-1 - 90년 말 사회기관 협의의 임금률	- 방법 ④ - 여성 근로자임금률

〈표 5-1〉 계속

김정희 (1994)	1992년 대구 & 경북 전업주부 397명 취업주부 418명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①-1 -여성근로자임금률	- 방법 ②-2 - 방법 ②-2 -파출부 : 사회기 관 협정임금 -여성근로자 임금률	- 방법 ③-1 -여성 근로 자임금률
김태홍** (2001)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전업주부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①-1 -여성근로자임금률	- 방법 ②-2 -여성근로자 임금률	- 방법 ③-1 -여성 근로 자임금률
김준영** (2001)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전업주부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①-1 -전체 임금률 이용	- 방법 ②-2 -전체 임금률 이용	- 방법 ③-2 -여성 근로 자임금률
문숙재* 윤소영 (2001)	1999년 생활시간 조사 15세 이상 남녀 대상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방법 ①-1 -여성근로자임금률 -남여 각각 임금률 -(남+여임금률)/ 2	- 방법 ②-2 - 방법 ③ -여성근로자임금률 -남여 각각 임금률 -(남+여임금률)/ 2	방법 ③-3 -여성 근로 자임금률 -남여 각각 임금률 -(남+여임 금률)/ 2
권태희 (2006)	2004년도 생활시간 조사 전체여성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여성근로자임금률	-여성근로자임금률	-여성근로자 임금률 (총기획비 용/순기획비 용법 적용)

자료: 문숙재 외, 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의 표 <3-6>을 수정보완한 것임.

* 김정희(1994), 문숙재·윤소영(2001)경우, 대GNP비율추정시 한달을 30.4일, 전체인구 이용

** 김태홍(2001), 김준영(2001)경우, 대GNP비율추정시 연간가치를 산정, 월가치액으로 환산, 인구자료는 전체인구 중 전업주부만을 상용하여 산정

- ◆ 방법① : 가사노동 영역별 노동시간 * 30 * 대체직업 임금률
- 방법①-1 : 가사노동 영역별 노동시간 * 30.4 * 대체직업 임금률
- 방법② : 총 가사노동시간 * 26 * 파출부 임금률
- 방법②-1 : 총 가사노동시간 * 30 * 파출부 임금률
- 방법②-2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파출부 임금률
- 방법③ : (단순노동시간 * 26 *가정부임금률) + (가정경영시간 * 26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률)
- 방법③-1 : (단순노동시간 * 30 *가정부임금률) + (가정경영시간 * 30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률)
- 방법③-2 : (단순노동시간 * 30.4 *가정부임금률) + (가정경영시간 * 30.4 * 개인서비스업관리자 임금률)
- 방법④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가정부 임금률 + 종합관리자 임금률)/2]
- 방법⑤ : 취업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최소한 얼마의 월급이면 일하시겠습니까?
- 방법⑥ : 총 가사노동시간 * 30 * 동일한 연령·학력 근로자의 임금률
- 방법⑥-1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동일한 연령·학력 근로자의 임금률
- 방법⑥-2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동일한 연령 근로자의 임금률
- 방법⑥-3 : 총 가사노동시간 * 30.4 * 동일한 연령 근로자의 임금률

2. 본 연구에 적용할 평가모형

본 연구가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가치를 산출하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다양한 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단

순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의 경우는 총합적 대체비용법¹⁵⁾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사 및 관련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활용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활동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김태홍 외, 2007) 전직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는 기회비용방법을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전직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이 행하는 유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해보고자 한다. 동일한 틀에 의하여 노인이 행하는 유급 및 무급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대분류 직업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각 임금은 모든 경제활동의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추계를 위하여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직종별·성별 임금을 산출하였다.

한편,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계는 노인의 거주지역과 성에 따라 4개 집단(비농가남자노인, 비농가여자노인, 농가남자노인, 농가여자노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임금수준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하고, 외국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가 일차산업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¹⁶⁾.

또한 경제적 가치 산출의 대상은 광의의 생산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활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이며, 협의의 생산활동인 경제활동, 가정내 가사노동(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가사노동가치산출의 경우 다양한 방법 중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산출된 경제적 가치가 가장 적음.

16) 연령의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부터 75세 이상 연령군의 안정적인 임금수준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군별 임금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1. 노동시장 참여활동

$$EL = PL_{ij} \times TL_{ij} \times WL_{ik} \times 365$$

단, EL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 남, n : 여 j : 농가, 비농가

EL; 노동시장 참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L_{ij} : 노동시장 참여자수

TL_{ij} : 노동시장 참여시간

WL_{ik} : 직업별 시간당 임금

2. 가사활동

$$EH = Ph_{ij} \times Th_{ij} \times Wh_i \times 365$$

단, EH는 노인의 가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 남, n : 여 j : 농가, 비농가

EH; 가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h_{ij} : 가사활동 참여자수

Th_{ij} : 가사활동 시간

Wh_i : 가사 및 관련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3. 자원봉사활동

$$EV = Pv_{ij} \times Tv_{ij} \times Wv_i \times 365$$

단, EV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 남, n : 여 j : 농가, 비농가

EV;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v_{ij}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

Tv_{ij} : 자원봉사활동 시간

Wv_i : 시간당 임금

- 대상: 65세 이상 노인
- 대상활동: 노동시장 참여활동, 가정내 가사노동(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참여 및 봉사활동 - 광의의 자원봉사)
- 활용자료: 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기준: 2007년)
임금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기준: 2007년)
활동참가율, 참가시간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년

제2절 경제적 가치평가

1. 개요

한국에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 기준 48조7,550억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GDP 대비 5.4%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생산활동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급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8조5,827억으로 GDP 대비 3.17%에 달하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19조2,275억 원으로 GDP 대비 2.13%이며, 자원봉사활동은 9,448억으로 GDP 대비 0.1%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노인 1인당 1천14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58.6%는 협의의 생산활동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가사노동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노인이 행하고 있는 기여의 일부만을 파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계된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시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가장 그 규모가 커 19조2,968억에 달하여 전체 가치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약 2/3가 가사노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총 경제적 가치의 28.1%인 약 13조6,894억은 도시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76.9%가 유급노동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시여성노인의 경우와 대조되고 있다.

한편,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총 경제적 가치의 15.5%인 7조5,801억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16.8%인 8조1,879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그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약 90%가 유급노동참여에서 발생하는 것임에 비하여 농촌여성노인의 경우는 약 60%는 유급노동참여에서, 다른 1/3은 가사노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성역할분업에 기초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시남성노인과 농촌여성노인은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산출과 더불어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도 일정한 비중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여성노인의 경우는 가사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급노동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규모 및 구성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계
도시남성노인	10,523,888	2,907,119	258,440	13,689,448
도시남성 내(%)	76.9	21.2	1.9	100.0
활동 내(%)	36.8	15.1	27.4	28.1
도시여성노인	6,357,732	12,576,832	362,226	19,296,791
도시여성 내(%)	32.9	65.2	1.9	100.0
활동 내(%)	22.2	65.4	38.3	39.6
농촌남성노인	6,809,719	603,798	167,396	7,580,914
농촌남성 내(%)	89.8	8.0	2.2	100.0
활동 내(%)	23.8	3.1	17.7	15.5
농촌여성노인	4,891,365	3,139,783	156,740	8,187,889
농촌여성 내(%)	59.7	38.3	1.9	100.0
활동 내(%)	17.1	16.3	16.6	16.8
노인 전체	28,582,706	19,227,534	944,803	48,755,044
노인전체 내(%)	58.6	39.4	1.9	100.0
활동 내(%)	100.0	100.0	100.0	100.0

(단위: %,백만원)

〈표 5-3〉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계
도시남성노인	1.17	0.32	0.03	1.52
도시여성노인	0.71	1.40	0.04	2.14
농촌남성노인	0.76	0.07	0.02	0.84
농촌여성노인	0.54	0.35	0.02	0.91
노인 전체	3.17	2.13	0.10	5.41

2. 생산활동 종류별 경제적 가치

가. 유급노동참여

노인의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인 28조5,827억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도시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는 10조5,239억으로 노인의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 전체의 36.8%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1.17%에 달하는 규모이다. 다음 농촌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6조8,097억으로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의 23.8%를 차지하며 GDP 대비로는 0.76%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유급노동참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인인구 중 남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이렇게 남성노인이 수행하는 유급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은 남성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고 노년기에도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비농가에 거주하는 노인의 남녀차이는 농가거주 노인의 남녀차이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이다.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속하는 유급노동참여의 경우 도시남성노인의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5.7%이며 도시여성노인은 24.2%로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농가의 경우는 각각 86.6%와 76.5%로 10.1%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절대적인 유급노동행위율은 도시나 농가에서 모두 남자노인에게서 높지만 절대적인 수준과 행위율의 남녀차이는 농가에서 월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를 노인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5백94만 원이며,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노인1인당으로는 1천449만 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는 노인의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노인1인당 경제적 가치는 농촌남성노인의 경우가 월등히 높아 1천336만 원이며 다음으로는 농촌여성노인이 770만 원, 도시남성노인이 747만 원, 도시여성노인이 282만 원의 순이다.

한편, 이러한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를 참여노인 1인당 가치로 계산해보면 도시남성노인의 경우는 노인1인당 2천9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촌남성노인의 1천542만 원, 도시여성이 1천165만 원, 농촌여성노인이 1천8만 원이다. 농촌지역남성노인의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의 총합이 큼에도 불구하고 노인1인당 경제적 가치가 적은 것은 대다수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낮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4〉 노인의 유급노동참여의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분, 원)

경제활동 참여	인구수 (인구 추계)	참가율	직종별 종사 자수 ¹⁾	1일 활동 시간	시간당 임금 ²⁾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1인당 연간 가치	전체 경제활동참여의 연간 경제적 가치
	A		B	C	D	E	F	F×B
	인구추계 (명)	생활 시간 조사의 행위율 (%)	A×행위율 (명)	생활시간 조사 행위자의 평균행위 시간 (시간:분)	(원)	C×D (원)	C×D×365 (원)	(원)
도시남성노인	1,409,330	35.7	503,131	4:60	11,594	57,931	21,144,944	10,523,888,349,594
직업1 ³⁾			48,804	5:15	34,080	178,636	65,202,140	3,182,104,934,658
직업2			24,150	3:43	14,321	53,107	19,384,070	468,130,701,361
직업3			34,716	5:48	14,747	85,631	31,255,283	1,085,059,226,556
직업4			97,607	5:25	8,197	44,359	16,191,193	1,580,379,838,388
직업5			19,119	4:59	8,711	43,468	15,865,780	303,337,381,354
직업6			29,685	4:52	9,538	46,466	16,960,074	503,455,015,830
직업7			31,194	8:09	6,919	56,390	20,582,295	642,046,386,609
직업8			218,359	7:41	4,509	34,622	12,636,886	2,759,374,864,838
도시여성노인	2,255,890	24.2	545,925	3:43	7,431	27,668	10,098,853	6,357,732,765,357
직업1			0	0:00	26,064	0	0	0
직업2			7,097	1:21	12,364	16,609	6,062,275	43,024,149,072
직업3			6,551	4:58	13,757	68,326	24,939,148	163,378,967,277
직업4			195,987	5:42	6,783	38,607	14,091,400	2,761,734,166,505
직업5			65,511	4:04	5,379	21,893	7,990,773	523,483,923,862
직업6			29,480	6:32	5,516	36,075	13,167,244	388,169,953,158
직업7			0	0:00	6,107	0	0	0
직업8			241,299	5:58	4,714	28,135	10,269,174	2,477,941,605,482
농촌남성노인	509,860	86.6	441,539	4:46	11,594	55,265	20,171,628	6,809,719,579,849
직업1			1,325	4:30	34,080	153,360	55,976,400	74,147,250,736
직업2			2,649	2:36	14,321	37,282	13,608,053	36,050,896,777

경제활동 참여	인구수 (인구 추계)	참가율	직종별 종사 자수 ¹⁾	1일 활동 시간	시간당 임금 ²⁾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1인당 연간 가치	전체 경제활동참여의 연간 경제적 가치
	A		B	C	D	E	F	F×B
	인구추계 (명)	생활 시간 조사의 행위율 (%)	A×행위율 (명)	생활시간 조사 행위자의 평균행위 시간 (시간:분)	(원)	C×D (원)	C×D×365 (원)	(원)
직업3			0	0:00	14,747	0	0	0
직업4			883	1:36	8,197	13,088	4,777,075	4,218,527,529
직업5			426,968	4:51	8,711	42,306	15,441,845	6,593,173,174,962
직업6			0	0:00	9,538	0	0	0
직업7			0	0:00	6,918	0	0	0
직업8			9,714	6:23	4,509	28,805	10,513,823	102,129,729,846
농촌여성노인	634,920	76.4	485,079	4:48	7,431	35,681	13,023,633	4,891,365,804,503
직업1			0	0:00	26,064	0	0	0
직업2			0	0:00	12,364	0	0	0
직업3			0	0:00	13,757	0	0	0
직업4			18,433	6:24	6,783	43,445	15,857,467	292,300,648,155
직업5			433,175	4:59	5,379	26,761	9,767,592	4,231,080,798,337
직업6			4,851	7:30	5,516	41,379	15,103,406	73,263,430,565
직업7			0	0:00	6,107	0	0	0
직업8			28,620	5:59	4,714	28,213	10,297,851	294,720,927,447
노인 전체	4,810,000	41.0	1,972,100	4:33	10,828	49,213	17,962,840	28,582,706,499,303

주: 1) 직종별 종사자수는 제특성(도시남성, 도시여성, 농촌남성, 농촌여성)별 경제활동참가자 총수를 구한 다음 제특성별 직업분포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2) 전직종 65세 이상 군의 성별 직종별 평균임금(원)
3) 직업1.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관리자 직업2.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3. 사무종사자 직업4. 서비스판매
직업5. 농업어업 숙련업 직업6.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직업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업8. 단순노무, 기타종사자

나.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총 19조2,275억 원으로 이중 65.4%인 12조 5,768억이 도시여성노인의 가사노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농촌여성노인의 3조1,398억 원으로 16.3%이다. 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약 72%가 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인의 가사노동참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GDP 대비 1.85%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여성노인의 가사노동참여와 참여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노인1인당 가사노동의 가치는 약 400만원인데, 노인특성별로는 도시여성의 경우가 55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촌여성노인의 495만 원이며, 도시남성노인의 경우는 206만 원, 농촌남성노인은 118만 원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노인 1인당 가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남성과 농촌남성에게 동일한 임금수준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노인 1인당 가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남성노인에 비하여 도시지역 남성노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표 5-5〉 노인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분, 원)

가사노동	인구수 (인구추계)	가사 노동 참가율	가사 노동자 수	1일 가사노동 시간	시간당 임금 ¹⁾	가사노동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가사노동 1인당 연간 가치	전체 가사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A		B	C	D	E	F	F×B
	인구추계 (명)	생활시간 조사의 행위율 (%)	(명)	생활시간 조사 행위자의 평균행위 시간 (시간/분)	(원)	C×D (원)	C×D×365 (원)	(원)
도시남성노인	1,409,330	64.9	914,655	1:41	5,173	8,708	3,178,377	2,907,119,336,365
도시여성노인	2,255,890	94.5	2,131,816	3:27	4,685	16,163	5,899,586	12,576,832,656,109
농촌남성노인	509,860	58.8	299,798	1:04	5,173	5,518	2,014,021	603,798,923,204
농촌여성노인	634,920	94.3	598,730	3:04	4,685	14,367	5,244,077	3,139,783,715,240
노인 전체	4,810,000	82.0	3,944,200	2:48	4,854	13,591	4,960,788	19,227,534,630,918

1) 전직종 65세 이상 군의 성별 가사 및 관련근로자 (직종911) 의 평균임금(원)

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로는 생활시간에서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와 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광의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총 9,448억으로 GDP 대비 0.1%인데, 이는 노인1인당 약 20만 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도시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3,622억으로 총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의 38.3%이며, 도시남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2,584억으로 전체의 27.4%로 그 다음 규모이며, 농촌남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17.7%, 농촌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노인1인당으로 환산하면 19만6천 원으로 농촌남성노인은 1인당 32만8천 원, 농촌여성노인 1인당은 24만7천 원, 도시지역남성노인은 18만3천 원, 도시지역여성노인 16만1천 원의 순서이다. 이를 참여노인 1인당 가치로 환산하면 전체노인의 경우 577만7천원이며, 농촌남성노인의 경우가 938만1천 원으로 가장 그 수준이 높고 다음이 도시지역남성노인으로 733만5천 원, 농촌여성노인 574만1천 원, 도시여성노인 434만 원의 순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1,954억 원으로 광의의 자원봉사활동참여의 경제적 가치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중 공식적인 형태의 자원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노인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남성노인의 경우가 914억4천만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도시여성노인의 535억4천만 원, 농촌남성노인의 470억4천만 원의 순이며 농촌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33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도시남성의 경우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35%이며, 다음이 농촌남성노인의 28%, 도시여성노인의 15%,

농촌여성노인의 2%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시화·체계화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중 공식적 자원봉사활동참여가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6〉 노인의 자원봉사(광의의 개념) 활동의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분, 원)

자원봉사	인구수 (인구 추계)	자원 봉사자 비율	자원 봉사자 수	1일 자원봉사 시간	시간당 임금 ¹⁾	자원봉사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 1인당 연간 가치	전체 자원봉사의 연간 경제적 가치
	A		B	C	D	E	F	F×B
	인구추계 (명)	생활 시간 조사의 행위율 (%)	(명)	생활시간 조사 행위자의 평균행위 시간 (시간:분)	(원)	C×D (원)	C×D×365 (원)	(원)
도시남성노인	1,409,330	2.5	35,233	1:44	11,594	20,096	7,335,137	258,440,727,450
도시여성노인	2,255,890	3.7	83,468	1:36	7,431	11,890	4,339,704	362,226,109,693
농촌남성노인	509,860	3.5	17,845	2:13	11,594	25,700	9,380,512	167,396,177,665
농촌여성노인	634,920	4.3	27,302	2:07	7,431	15,729	5,741,067	156,740,078,339
노인 전체	4,810,000	3.4	163,540	1:47	10,828	19,310	7,048,126	944,803,093,147

1) 전직종 65세 이상 군의 성별 평균임금(원)

〈표 5-7〉 노인의 자원봉사(협회의 개념) 활동의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분, 원)

자원봉사	인구수 (인구추계)	자원 봉사자 비율	자원 봉사자 수	1일 자원봉사 시간	시간당 임금 ¹⁾	자원봉사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 1인당 연간 가치	전체 자원봉사의 연간 경제적 가치
	A		B	C	D	E	F	F×B
	인구추계 (명)	생활 시간 조사의 행위율 (%)	(명)	생활시간 조사 행위자의 평균행위 시간 (시간·분)	(원)	C×D (원)	C×D×365 (원)	(원)
도시남성노인	1,409,330	0.8	11,275	1:55	11,594	22,222	8,110,969	91,448,257,405
도시여성노인	2,255,890	0.5	11,280	1:45	7,431	13,004	4,746,551	53,538,487,497
농촌남성노인	509,860	0.4	2,039	5:27	11,594	63,187	23,063,365	47,036,348,096
농촌여성노인	634,920	0.3	1,905	0:39	7,431	4,830	1,763,005	3,358,100,928
노인 전체	4,810,000	0.5	24,050	2:03	10,828	22,197	8,102,051	195,381,193,926

1) 전직종 65세 이상 군의 성별 평균임금(원)

〈표 5-8〉 노인의 생산활동의 노인1인당 경제적 가치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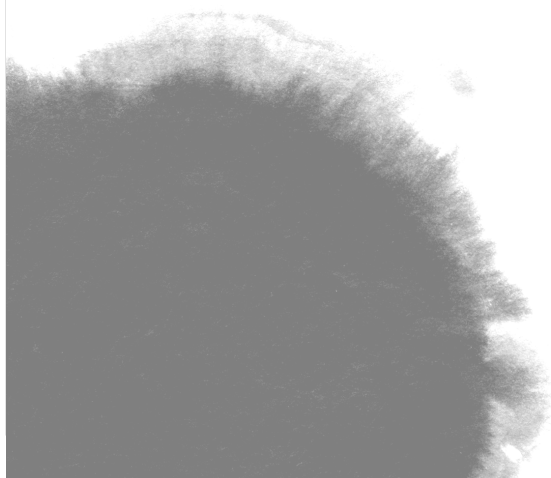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계
도시남성노인	7,467,299	2,062,767	183,378	9,713,444
도시여성노인	2,818,281	5,575,109	160,569	8,553,959
농촌남성노인	13,356,058	1,184,245	328,318	14,868,621
농촌여성노인	7,703,909	4,945,164	246,866	12,895,939
노인 전체	5,942,351	3,997,408	196,425	10,136,184

〈표 5-9〉 참여노인 1인당 가치

	(단위: %, 원)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계
도시남성노인	20,916,804	3,178,377	7,335,137	31,430,318
도시여성노인	11,645,791	5,899,586	4,339,704	21,885,081
농촌남성노인	15,422,699	2,014,021	9,380,512	26,817,232
농촌여성노인	10,083,650	5,244,077	5,741,067	21,068,794
노인 전체	14,493,538	4,874,888	5,777,199	25,145,625

06

결론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에 기초하여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와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 절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인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진정한 이해는 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제비교를 통하여 노인의 90% 전후인 절대 다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협의의 생산활동은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노인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의 10% 미만 만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노인이 무보수로 행하는 생산활동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둘째, 한국노인의 절대 다수가 어떤 형태던 간에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91.9%가 다양한 형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 기준 48조7,550억 원으로 GDP 대비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노인1인당 년 1천만14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렇듯 현재 한국노인의 다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형태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생산활동을 통하여 산출되는 경제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인 것이다.

셋째, 한국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행태는 비교대상이 된 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생산활동 참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노인의 41.0%가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해당하는 비가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행위율을 보인 노르웨이의 7.9%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유급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총 경제적 가치의 58.6%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확대된 생산활동인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은 45.3%로 80~90% 수준을 보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생활시간량에 기초한 유형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중심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중 경제활동참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시화·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자원봉사참여율 자체는 낮지만 참여자의 경우 자원봉사참여시간은 많아서 특정소수 집중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모든 국가에서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경제활동참여 즉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가 더 빈번한 반면,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확대된 개념의 생산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지만, 남녀간의 차이의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노인에게서의 남녀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남성노인이 수행하는 유급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여성노인의 경우에 비하여 높는데 이

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고 노년기에도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남녀간의 차이는 생활세계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가정관리·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에 집중되며, 남성노인은 여가활동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내 역할분담에서 나타난 활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교육수준이 작동하는 방향에 한국과 유럽국가 간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여에 그리 크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럽국가에서는 비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즉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수준과 참여율의 강한 비례관계는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여섯째, 도농간의 차이에 있어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하여 교제나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의 노인의 경우는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적다. 또한 한국의 경우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수준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곱째, 이러한 국가별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되는데, 바로 연령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실태이다. 모든 국가에서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가 낮은데, 이러한 생산적 활동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노화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노인이 타 국가 노인에 비하여 활발하게 참여하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노동시장참여율이 타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 학습활동참여율이 높아 평생교육의 저변이 확립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종교활동 참여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결과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다양한 생산활동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계량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정화를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견해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에 대한 각종 자료 작성에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그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내용에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비노인층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확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산출된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노인의 법적 지위나 다양한 경제·사회적 부문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가치가 손해배상이나 조세제도에 있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노인의 법률상의 불이익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조세제도에서 노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적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생산활동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높은데 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일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도 감소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에 따라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유급노동을 하는 노인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층의 유급노동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안정적 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럽국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행위자의 행위시간도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은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보다는 고용시장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즉 실제적인 정년연령을 높혀 전기 노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 등으로 전수하도록 하여 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장지연 외, 2008). 정년연장과 더불어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제도를 강화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 등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도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은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낮는데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실태를 보이는 독일의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지금 노인의 자원봉사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지금보다 약 8배 정도 높아져 GDP 대비 0.8%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는 지금과 같은 노인의 유급노동 참여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노인을 구체적인 생산적 가치를 갖는 다양한 대체 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제공이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 행태를 보면 이웃돕기와 같은 비공식적 자원봉사가 많으므로 그러한 일상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가시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묶어내고 가시화할 수 있는 기재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노년기 생활세계의 성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사회로의 발전이 누적되어 미래의 노인이 경험할 성차를 완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노인의 가사노동 참여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 남성노인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남성노인들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는 노년기의 남녀차이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남성노인에게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활동 외에도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타인의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의 의존성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 활용한 생활시간조사는 본인이 자료 기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노인 중 일부 집단을 배제한 결과일 수 있고, 따라서 경험적 분석이 노인전체의 현실보다 과대하게 파악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활동의 실태와 그러한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그러한 국가별 차이를 가져온 문화적 맥락 및 정책적 맥락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는 이러한 국가별 특성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검토와 좀 더 많은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비교역사적 접근의 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추계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향후는 좀 더 다양한 산출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권태희(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제8권 2006, pp.1~24.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가치추계와 정책화 방안」, 2001.4.27.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공동추최 세미나 자료
- 김태홍·김난주·권태희(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경제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제30권 제3호, pp.83~105.
- 문숙재 외(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작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 외(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_____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2000). 『국민계정해설』.
- _____ (1996). 『1996년 국민계정해설』.
- 한경혜(2000).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

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제18권 1호, pp.46~58.

Anttonen Anneli and Jorma Sipilä(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Bass and Caro(2001). "Productive Aging: a Conceptual Framework", in Morrow-Howell, Hinterlong, and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Pp. 37~80.

Brudney, J.(1990). *Fostering Vo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Jossey-Bass.

Birren, J. E. and Warner Schaie, K.(Eds.)(2001).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Fifth Edition, Academic Press.

Butler, R. N. and Gleason, H. P. (1985), *Productive Aging*, NY:Springer.

Caro, F. Gl, Bass, S. A. and Chen. Y. P.(1993), "Introduction: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in S.A. Bass, F.G. Caro, and Y. P. Chen(Eds.),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eity*, Pp.1-25. Westport, CT: Auburn House.

Chambre, S. M.(1987). *Good Deeds in Old Age: Vountering by the New Leisure Class*. Lexington, MA:Lexington Books.

Dannefer, D. & P. Uhlenberg(1999), "Paths of the Life Couse: A Typology" in V. L. Bengtson and K. W. Schaie(Eds.),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Dwyer, J. and Coward, R.(1992),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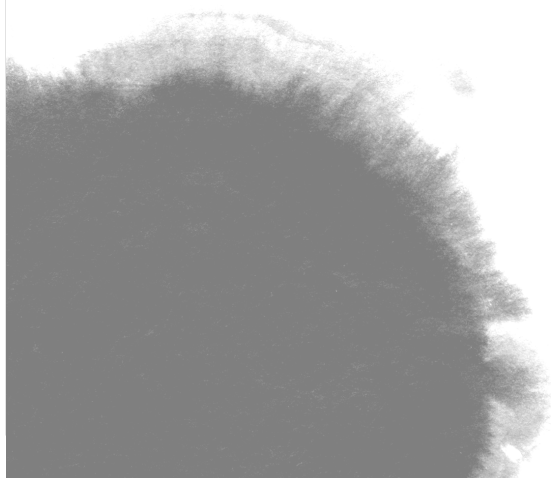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Herzog, A. R. & House, J. S. (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15(1), pp.49-54.

Herzog, A. R., Franks, M. M., Markus, H. R., & Holmberg, D. (1996). Productive Activities and Agency in Older Age. In M. Baltes & L. Montada (Eds.), *Produktives Leben im Alter*. Frankfurt, Campus Verlag GmbH, pp.323-343.

- Herzog et al.(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Social Sciences*, 44B, Pp.129-138.
- Herzog, A. R. and Morgan, J. N.(199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Value of Productive Activities:Four Different Approaches", *Research on Aging*, Vol.14, Pp,169 ~ 198.
- Hendricks, J., & Cutler, S. J.(2004), "Volunteerism and Socioemotional Selec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9B, No.5, pp.S251~S257.
- Hooyman, N. and Gonyea, J.(1995).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Sage.
- Kane, R. and Kane. R.(Eds.)(2001). "Emerging Issues in Chronic Care", in Binstock R. and Geroge, L.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406 ~ 425.
- Kane, R. and Penrod, J. D.(Eds.) (1995). *Family Caregiving in an Aging Society*, Sage.
- Moody, H. R.(2005),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 (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 Pp.55 ~ 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_____(2001). "Productive Aging and the Ideology of Old Age", Morrow-Howell, Hinterlong, and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Pp. 175 ~ 196.
- Morrow-Howell, Hinterlong, and Sherraden (Eds.)(2001). *Productive Agin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ECD(2009a), *Society at a Glance*, 2009.
- _____(2009b), *Pensions at a Glance*, 2009.
- Riley, M.(1983),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4, No.3, pp.439 ~ 454.

-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Vol. 40, No.3, pp. 266 ~ 270.
- Rossi and Rossi(1990). *Of Human Bonding*, Aldine de Gruyter.
- Rowe and Kahn(1998) *Successful Ageing*, Random House.
- Roy and Ziewek, *On the Economics of Voluntering*, ZEF Discussion Paper 31. 김태홍 외(2007)에서 재인용.
- Simonsick, E. M.(1995).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Sage Publications.
- Uhlenberg, P.(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Vol.40, No.3, pp. 261 ~ 266.
- UNDP, UNIFEM, KWDI(1987).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 Wilber, L.(1996). *Eye to Eye:The quest for a New Paradigm* (3rd Ed.). Boston:Shambala.

부 록





부록

[부록 1] 외국 노인의 생활세계 국제비교

[부록 2]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유형의 결정요인

부록 1. 외국 노인의 생활세계 국제비교

〈부표 1-1〉 국가별 노인의 제특성

(단위: 명, %)

	한국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전체(명)	7,754	779	3,472	3,106	9,005	9,918
성별						
남자	38.9	52.2	44.0	43.7	42.9	42.8
여자	61.1	47.8	56.0	56.3	57.1	57.2
연령						
65세~69세	40.7	46.6	42.1	33.2	31.4	32.2
70세~74세	28.8	27.9	27.3	27.8	27.6	27.4
75세 이상	30.5	25.5	30.6	39.0	41.1	40.4
지역						
비농가	69.0	71.4	-	89.6	62.5	51.4
농가	31.0	28.6	-	8.6	37.5	48.6
교육정도						
무학	48.6	-	-	-	-	-
초등학교	30.0	33.9	20.1	68.5	75.0	73.5
고등학교(중등학교)	17.5	45.4	47.1	15.2	21.8	20.4
대학 이상	3.9	20.2	29.7	13.2	3.2	5.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3.8	-	-	-	-	-
배우자	20.9	-	-	-	-	-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24.4	-	-	-	-	-
조부모	0.5	-	-	-	-	-
기타	0.4	-	-	-	-	-
혼인정도						
미혼	0.1	-	-	-	-	-
유배우	58.1	-	-	-	-	-
사별, 이혼	41.9	-	-	-	-	-
가구형태						
1인 가구		28.1	31.1	35.9	26.5	19.3
부부가구		61.7	52.5	52.0	40.3	38.4
부부 + 기타 가구원		7.2	5.5	7.4	22.8	29.6
기타 형태		3.0	10.9	4.7	10.4	12.8
주택 소유여부						
있음	83.7	-	52.4	70.8	79.3	89.1
없음	16.3	-	42.3	27.9	13.2	7.9
기타	-	-	5.4	1.1	7.6	2.9
가구소득						
하위 25%	-	55.3	26.6	52.2	-	58.4
중위 50%	-	37.6	59.2	22.3	-	30.0
상위 25%	-	7.1	7.8	2.5	-	10.0

〈부표 1-2〉 노르웨이 노인의 생활세계(2000)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노동	7.9	312.8 (183.5)	24.7 (98.8)
	가정관리	97.4	202.2 (122.6)	197.0 (125.2)
광의의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	30.5	78.4 (94.7)	23.9 (63.5)
	참여 및 봉사활동	7.4	112.6 (101.7)	8.3 (40.3)
	사적개발활동	0.7	55.5 (29.7)	0.4 (5.3)
기타 활동	교제활동	84.9	114.5 (88.7)	97.2 (91.5)
	종교활동	7.1	60.4 (53.9)	4.3 (21.0)
	여가활동	99.5	367.2 (154.3)	365.5 (156.0)
	대중매체 이용	97.6	243.0 (126.2)	237.3 (130.1)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3.8	85.0 (66.3)	3.3 (20.8)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39.5	83.6 (74.8)	33.0 (62.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7.0	119.4 (93.6)	92.0 (96.3)
	개인유지	100.0	669.2 (97.6)	669.2 (97.6)
	이동	68.6	64.4 (70.9)	44.2 (65.9)
	학습 및 기타	18.3	28.9 (16.2)	5.3 (13.1)

〈부표 1-3〉 독일 노인의 생활세계(2001)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노동	5.2	264.7 (190.5)	13.7 (72.9)
	가정관리	94.2	199.1 (117.2)	187.6 (122.9)
광의의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	56.1	82.9 (83.3)	46.3 (74.7)
	참여 및 봉사활동	40.1	79.6 (92.2)	31.9 (70.2)
	사적개발활동	8.5	97.0 (81.1)	8.3 (36.0)
기타 활동	교제활동	64.6	72.6 (63.8)	46.9 (61.9)
	종교활동	9.0	60.6 (40.3)	5.4 (21.1)
	여가활동	99.7	342.6 (145.2)	341.7 (146.1)
	대중매체 이용	96.5	206.4 (115.5)	199.2 (119.6)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2.5	135.2 (48.5)	3.3 (22.3)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46.3	92.3 (77.2)	42.8 (69.8)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9.2	121.7 (98.0)	96.4 (100.2)
	개인유지	100.0	714.9 (114.2)	714.9 (114.2)
	이동	63.5	67.5 (67.1)	42.9 (62.6)
	학습 및 기타	1.0	43.9 (26.7)	0.4 (5.0)

〈부표 1-4〉 영국 노인의 생활세계(2000)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노동	3.9	292.4 (193.6)	11.4 (68.4)
	가정관리	96.5	218.2 (120.1)	210.5 (124.7)
광의의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	39.1	71.0 (78.1)	27.8 (59.9)
	참여 및 봉사활동	13.5	69.5 (72.0)	9.4 (35.6)
	사적개발활동	4.2	113.1 (86.6)	4.8 (28.9)
기타 활동	교제활동	60.0	83.7 (72.6)	50.2 (69.6)
	종교활동	6.4	91.5 (78.9)	5.9 (30.0)
	여가활동	99.8	371.7 (151.2)	370.9 (151.9)
	대중매체 이용	95.9	243.9 (136.6)	233.9 (142.3)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1.6	142.0 (64.5)	2.3 (19.7)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39.0	77.1 (70.2)	30.1 (5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80.0	130.8 (101.2)	104.7 (104.5)
	개인유지	100.0	686.8 (111.2)	686.8 (111.2)
	이동	72.5	74.4 (67.8)	54.0 (66.6)
	학습 및 기타	26.5	31.2 (24.4)	8.3 (18.6)

〈부표 1-5〉 이탈리아 노인의 생활세계(2002)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노동	3.5	406.8 (170.6)	14.4 (81.8)
	가정관리	85.8	244.0 (147.0)	209.2 (160.6)
광의의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	28.9	96.9 (97.2)	28.0 (68.2)
	참여 및 봉사활동	1.4	141.1 (110.3)	1.9 (20.8)
	사적개발활동	0.2	101.7 (44.9)	0.2 (5.0)
기타 활동	교제활동	56.2	95.1 (73.7)	53.5 (72.7)
	종교활동	20.3	68.1 (45.3)	13.8 (34.2)
	여가활동	98.8	317.9 (159.6)	313.9 (162.4)
	대중매체 이용	90.7	185.9 (115.6)	168.6 (122.7)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0.6	114.5 (48.0)	0.7 (9.5)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33.6	111.1 (77.9)	37.3 (69.3)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5.7	141.8 (100.5)	107.3 (106.5)
	개인유지	100.0	758.2 (137.1)	758.2 (137.1)
	이동	72.0	64.9 (54.9)	46.8 (54.9)
	학습 및 기타	0.0	-	-

〈부표 1-6〉 스페인 노인의 생활세계(2002)

활동종류	행동분류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노인전체의 평균시간 (표준편차)
협회의 생산활동	노동	3.4	244.1 (200.4)	8.4 (57.9)
	가정관리	84.5	231.0 (140.8)	195.3 (154.1)
광의의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	17.4	116.8 (111.6)	20.3 (64.3)
	참여 및 봉사활동	1.9	107.8 (93.1)	2.1 (19.7)
	사적개발활동	1.2	124.9 (96.7)	1.5 (17.0)
기타 활동	교제활동	44.1	99.8 (78.6)	44.0 (72.0)
	종교활동	12.7	61.2 (48.7)	7.7 (26.7)
	여가활동	98.8	362.8 (158.4)	358.6 (162.2)
	대중매체 이용	91.1	210.7 (120.6)	192.0 (129.8)
	관람 및 문화 행사참여	0.8	119.2 (60.1)	1.0 (12.1)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53.4	132.2 (83.9)	70.6 (90.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65.5	145.1 (109.8)	95.0 (112.5)
	개인유지	100.0	764.1 (134.6)	764.1 (134.6)
	이동	64.6	58.7 (56.4)	37.9 (53.3)
	학습 및 기타	0.1	40.0 (27.0)	0.0 (1.1)

〈부표 1-7〉 노르웨이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¹⁾

(단위: %)

	노동	기정관리	가족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성												
남자	11.8	96.1	42.7	7.9	1.5	75.9	3.9	98.9	97.8	2.6	44.3	69.1
여자	4.7	98.6	20.3	7.1	0.0	92.4	9.6	100.0	97.5	4.7	35.5	83.5
연령												
65~69	15.2	98.0	34.0	5.6	0.3	86.0	3.7	99.7	96.9	4.8	44.4	73.3
70~74	3.1	96.9	26.0	10.6	1.6	87.3	9.0	99.1	98.1	3.1	42.2	80.2
75~	4.8	97.0	30.9	6.4	0.6	81.6	9.1	99.7	97.9	3.6	31.4	77.9
지역												
도시	7.2	98.6	28.0	7.9	0.4	83.7	6.2	99.9	97.7	4.7	40.9	78.8
농어촌	9.6	94.7	36.1	6.3	1.7	87.5	8.9	98.7	97.4	2.0	36.1	72.9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3.8	96.4	27.9	5.2	0.5	85.2	7.4	99.7	97.3	1.9	35.6	76.7
중등교육	9.2	98.0	31.4	9.2	0.0	86.4	6.8	99.3	97.1	4.8	38.9	76.5
중등교육 이상	13.0	97.3	33.9	7.6	1.6	81.0	5.4	100.0	98.9	4.9	47.8	78.3

노동	기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광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구형태													
1인가구	8.2	99.0	23.2	6.2	0.3	83.6	8.5	100.0	97.7	4.9	36.4	81.6	
노인부부가구	6.3	97.0	34.4	9.1	0.5	85.0	6.8	99.3	97.7	3.3	40.2	74.7	
부부 + 기타 가구원	22.1	98.6	25.0	1.5	4.4	91.2	1.5	100.0	98.5	2.9	45.6	81.2	
기타 가구	6.5	83.9	38.7	0.0	0.0	80.6	10.0	96.8	93.5	6.5	41.9	70.0	
주택소유여부													
소유	-	-	-	-	-	-	-	-	-	-	-	-	-
렌트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가구소득													
하위 25%	6.0	98.2	29.0	6.5	1.0	86.0	8.7	99.3	97.5	3.5	36.0	78.3	
중위 50%	9.4	95.7	33.8	9.4	0.6	82.9	4.8	99.7	97.4	4.0	44.0	74.9	
상위 25%	19.0	100.0	25.9	3.4	0.0	86.0	3.5	100.0	98.3	6.9	48.3	75.9	

주: MTUS에서는 개인특성으로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가구형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소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관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표3-7> ~<표3-11>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_’로 표기하였음.

〈부표 1-8〉 독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단위: %)

노동 기정관리 가족 참여 및 일반인의 여가활동												
성												
남자												
여자												
연령												
65~69												
70~74												
75~												
지역												
도시												
농어촌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중등교육												
중등교육 이상												

노동	기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8.3	91.4	57.2	42.0	12.8	59.3	7.2	99.7	96.5	2.6	47.5	77.7
2.8	96.4	55.1	38.6	5.2	68.7	10.4	99.8	96.5	2.4	45.4	80.4
8.2	95.3	57.5	44.2	12.4	66.7	8.3	99.6	95.1	2.7	47.7	78.2
5.5	93.5	58.7	38.6	6.6	64.8	6.1	100.0	97.5	2.5	47.1	78.2
0.8	93.5	51.6	35.7	4.9	61.4	12.4	99.7	97.6	2.2	43.7	81.6
-	-	-	-	-	-	-	-	-	-	-	-
-	-	-	-	-	-	-	-	-	-	-	-
3.1	95.9	50.1	35.2	6.0	62.9	11.7	99.9	96.7	1.9	43.0	78.6
4.3	93.8	55.6	37.1	6.4	63.4	8.0	99.8	96.6	2.0	45.5	78.5
8.0	93.7	60.0	48.7	13.5	67.6	8.2	99.6	95.9	3.6	50.2	80.7

노동	기정관리	가족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가구형태												
1인가구	4.6	98.1	57.8	48.6	7.8	72.4	10.7	99.9	96.4	2.7	49.4	82.3
노인부부가구	4.1	94.9	55.3	37.3	9.7	61.2	6.0	99.7	96.9	2.3	47.0	87.5
부부 + 기타 가구원	12.3	81.2	62.6	45.5	15.1	70.1	12.8	99.5	95.7	4.3	42.5	71.7
기타 가구	8.8	86.3	50.6	26.1	1.6	55.8	16.6	99.5	94.9	1.6	36.2	77.7
주택소유여부												
소유	7.0	92.0	57.4	39.5	8.3	64.7	9.9	99.6	96.0	2.8	46.0	77.7
렌트	3.1	96.7	54.0	40.9	9.4	64.8	7.0	99.9	97.2	2.1	47.3	80.9
기타	4.2	96.3	58.2	38.8	4.2	61.9	15.4	100.0	95.7	2.1	41.3	80.9
가구소득												
하위 25%	4.1	97.0	57.4	42.6	5.1	65.8	9.1	99.8	96.4	2.4	48.7	80.1
중위 50%	4.8	95.0	55.4	39.9	8.4	64.1	8.6	99.8	96.4	2.2	46.6	80.3
상위 25%	8.7	87.4	58.3	42.8	13.7	66.7	14.5	99.3	96.0	4.3	39.9	75.4

〈부표 1-9〉 영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단위: %)

일반인의 여가활동 참여 및 관심 정도												
성	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성	남자	6.1	95.0	44.6	14.5	5.9	50.5	5.2	99.9	2.3	41.6	76.2
	여자	2.3	97.6	34.9	12.8	3.0	67.2	7.3	99.8	1.2	37.1	82.9
연령	65~69	7.6	96.3	47.9	15.7	6.7	62.1	5.8	99.7	1.5	45.0	77.9
	70~74	3.4	97.4	41.4	14.8	3.7	59.3	5.7	99.8	1.0	38.0	78.8
	75~	1.6	95.9	31.2	11.1	3.0	59.1	7.3	99.9	2.1	35.5	82.5
지역	도시	3.9	96.6	38.7	14.2	4.4	59.3	6.1	99.8	1.6	38.6	80.3
	농어촌	4.5	96.8	42.7	9.2	2.9	67.2	6.4	100.0	1.3	42.4	79.2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8	96.0	35.9	10.1	2.3	59.0	5.8	99.8	1.6	37.7	78.5
	중등교육	4.3	97.1	39.8	15.4	5.5	59.6	6.1	99.6	2.3	39.6	78.0
	중등교육 이상	7.6	98.4	51.0	27.5	12.1	67.2	9.4	99.8	1.4	44.3	90.0

노동	기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가구형태												
1인가구	2.3	98.8	36.5	11.4	2.8	66.5	7.4	99.9	96.7	1.4	43.5	82.1
노인부부가구	4.2	96.3	41.3	15.7	5.2	56.8	4.6	99.8	95.6	1.7	37.6	79.8
부부 + 기타 가구원	12.4	88.8	37.0	10.9	6.6	53.5	16.3	99.2	93.8	0.4	34.1	72.1
기타 가구	1.2	91.0	39.3	10.7	2.4	54.2	3.0	99.4	96.4	3.6	27.4	78.6
주택소유여부												
소유	4.7	97.0	41.5	15.4	5.1	60.5	7.3	99.8	95.6	1.5	38.9	80.4
렌트	1.7	95.2	33.1	8.8	2.0	59.1	4.3	99.8	96.9	2.0	40.1	79.1
기타	0.0	100.0	31.7	4.9	2.4	61.0	2.4	100.0	90.2	0.0	19.5	85.4
가구소득												
하위 25%	0.9	97.0	36.4	11.4	3.0	60.8	5.7	99.8	96.4	1.9	39.3	79.5
중위 50%	7.2	96.9	42.4	18.1	7.9	61.2	8.4	99.8	95.9	1.0	41.4	83.0
상위 25%	21.5	94.6	45.2	25.8	15.1	72.0	17.2	100.0	88.2	3.3	32.6	81.7

〈부표 1-10〉 이탈리아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단위: %)

	노동	가정관리	가족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성													
남자	6.7	77.6	31.3	2.0	0.3	52.9	11.1	99.3	93.6	0.9	47.3	77.6	
여자	1.3	91.6	27.1	0.9	0.1	58.6	26.9	98.4	88.6	0.4	23.8	74.3	
연령													
65~69	6.6	90.2	34.3	2.0	0.3	55.8	18.5	98.4	90.8	0.9	34.0	72.2	
70~74	2.7	90.0	32.7	1.7	0.0	54.2	18.3	99.3	90.5	0.7	38.2	76.7	
75~	1.8	79.7	22.4	0.7	0.2	57.9	22.9	98.7	90.8	0.2	30.3	77.5	
지역													
도시	3.1	85.9	25.4	1.5	0.3	55.8	18.3	98.7	91.4	0.8	34.7	75.1	
농어촌	4.4	85.5	34.6	1.1	0.1	56.9	23.6	98.9	89.5	0.3	31.7	76.6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5	85.1	29.7	0.9	0.0	57.3	21.5	98.6	89.7	0.3	31.0	74.6	
중등교육	5.3	87.4	26.6	2.7	0.6	52.4	16.3	99.1	94.0	1.4	41.1	77.8	
중등교육 이상	15.7	89.5	24.9	2.5	2.2	57.4	18.8	99.7	90.8	3.1	45.2	85.2	

노동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가구형태												
1인가구	1.9	90.6	23.4	1.3	0.3	65.0	29.0	98.2	89.4	0.6	29.4	77.1
노인부부가구	3.1	85.9	31.6	1.6	0.3	55.4	16.5	99.1	92.3	0.6	37.6	75.1
부부 + 기타 가구원	7.0	80.2	32.8	1.0	0.0	47.4	13.9	98.9	89.6	0.7	35.5	74.6
기타 가구	1.7	85.2	23.9	1.4	0.1	56.6	26.8	98.4	90.4	0.6	24.7	76.3
주택소유여부												
소유	4.0	85.7	29.6	1.3	0.2	55.6	20.4	98.7	90.5	0.6	34.1	75.0
렌트	1.5	86.7	24.4	2.3	0.0	56.4	16.8	98.9	92.1	0.4	33.1	77.9
기타	2.6	85.0	30.4	0.9	0.5	62.8	26.0	98.9	90.0	0.4	29.6	78.6
가구소득												
하위 25%	-	-	-	-	-	-	-	-	-	-	-	-
중위 50%	-	-	-	-	-	-	-	-	-	-	-	-
상위 25%	-	-	-	-	-	-	-	-	-	-	-	-

〈부표 1-11〉 스페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 비율

(단위: %)

	노동	가정관리	가족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성												
남자	5.1	73.9	17.5	2.0	1.5	42.9	8.2	99.1	1.2	65.0	67.0	
여자	2.2	92.4	17.3	1.9	0.9	45.1	16.0	98.6	0.5	44.8	64.4	
연령												
65~69	5.4	88.8	24.4	2.2	1.7	44.6	12.1	98.9	1.1	56.5	62.9	
70~74	3.5	88.2	19.0	2.2	1.6	42.1	12.2	99.1	1.0	56.1	64.7	
75~	1.7	78.5	10.4	1.4	0.4	45.2	13.5	98.6	0.5	49.0	68.2	
지역												
도시	3.2	85.4	17.9	2.1	1.7	41.9	13.0	99.0	1.2	54.4	65.4	
농어촌	3.7	83.6	16.9	1.7	0.6	46.5	12.3	98.7	0.5	52.4	65.6	
교육수준												
중등교육 미만	2.5	83.8	16.4	1.6	0.6	44.2	11.5	98.7	0.5	51.0	64.2	
중등교육	4.3	87.3	20.0	2.4	1.2	43.6	14.3	99.1	1.4	60.0	67.0	
중등교육 이상	11.9	84.1	20.9	4.6	8.6	46.3	21.3	99.4	2.8	60.0	76.7	

노동	기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및 봉사활동	일반인의 학습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가구형태																
1인가구	2.4	94.4	13.3	2.8	1.2	54.8	18.4	99.2	90.3	0.9	49.1	67.1				
노인부부가구	2.9	85.0	19.3	1.7	1.2	43.8	10.6	99.0	92.5	0.7	56.9	65.0				
부부 + 기타 가구원	4.9	77.1	19.1	1.7	1.1	38.5	10.1	98.5	90.7	0.9	55.0	63.9				
기타 가구	3.0	85.5	14.3	1.8	1.2	42.2	16.3	98.7	89.2	0.9	45.6	68.1				
주택소유여부																
소유	3.4	84.6	17.4	1.9	1.2	43.9	12.6	98.8	91.2	0.9	53.7	65.4				
렌트	3.5	83.0	16.9	2.0	1.2	44.5	11.5	99.0	91.3	0.6	51.4	66.4				
기타	4.4	85.3	18.7	2.0	0.8	49.4	16.7	99.6	90.4	0.0	50.4	64.9				
가구소득																
하위 25%	2.0	86.4	16.5	1.7	0.8	46.6	12.7	98.9	90.6	0.5	51.9	65.3				
중위 50%	4.3	82.6	19.2	2.2	1.5	41.3	11.4	98.7	92.0	1.0	55.2	65.7				
상위 25%	9.4	78.8	18.2	2.1	2.7	38.6	17.1	98.8	91.2	2.1	55.9	66.4				

부록 2.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유형의 결정요인¹⁷⁾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유형 결정요인 분석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임을 고려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를 살펴보면, 노후 생활유형은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 가족내 미취학 자녀유무, 경제활동여부를 활용하였다.

다항로짓분석결과는 〈부표 2-2〉와 같다. 변수별 노후생활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일수록 여가활동형보다는 경제활동형을 할 가능성이 적으나 가정관리형보다는 경제활동중심형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은 가정관리형이나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에 비해서는 여가활동형일 확률이 높으며, 가정관리형에 비해서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노인의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노후생활유형화는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나,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

<부표 2-1> 분석 활용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명)
노후생활유형	경제활동형	24.6(773)
	가정관리형	20.6(648)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19.2(604)
	여가활동형	35.6(1119)
성별	남	38.6(1,215)
	녀	61.4(1,929)
연령	65-69	40.0(1,259)
	70-74	29.2(917)
	75-79	17.2(541)
	80세이상	13.6(427)
지역	농가	29.7(935)
	비농가	70.3(2,209)
교육수준	무학	39.5(1,243)
	초등	37.2(1,171)
	중고등	18.4(578)
	대학이상	4.8(152)
배우자 유무	무배우	42.5(1,337)
	유배우	57.5(1,807)
가구내 미취학 자녀유무	미취학 있음	0.3(10)
	미취학 없음	99.7(3,134)
경제활동여부	일했음	38.5(1,211)
	아님	61.5(1,933)
계	3,144명	

즉, 남성노인은 여가활동형 > 경제활동형 >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 가정관리형의 순서로 노후를 보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노인의 경우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형, 여가활동형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는 노인이 되더라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라는 가정내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하지만 남성노인의 경우는 남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이 퇴직으로 인하여 제외되면서 여가활동이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 될 확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남성노인의 경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노후생활유형에서는 80세 이상 고연령을 기준으로 할때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형보다는 경제활동형과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연령이 70세 미만 노인일 경우 가정관리형이나 가족보살피기에 비해 경제활동형일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노후생활유형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비농가에 비해 농가의 경우 여가활동형이나 가정관리형, 경제활동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노후생활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에 비해 고졸이하의 노인은 여가활동형에 비해 경제활동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이상 노인에 비해 무학의 노인은 가정관리보다는 여가활동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졸~고졸의 노인은 대졸노인에 비해 여가활동형보다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노인에 비해 무학의 노인은 가정관리형보다는 경제활동형일 확률이 크며, 가정관리형보다는 가족보살피기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유배우에 비해 가정관리형이나 경제활동형보다는 여가활동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가활동형보다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무배우형태에서는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 여가활동형 > 경제활동형 > 가정관리형 순서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내 미취학 아동 유무는 노후생활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노후생활유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여가활동형보다는 가족돌볼기형, 가정관리형, 경제활동형일 확률이 높으며, 특히 경제활동형과 가정관리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노후생활유형 결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경제활동 vs 여가활동 (기준 = 여가활동)		가정관리 vs 여가활동 (기준 = 여가활동)		가족돌보기 vs 여가활동 (기준 = 여가활동)	
	b	exp(b)	b	exp(b)	b	exp(b)
상수	-3.645		0.013		-1.481	
성별(기준=여성)						
남성	-1.133	0.322***	-3.275	0.038***	-1.203	0.300***
연령(기준=80세이상)						
65-69	1.033	2.811***	0.803	2.231***	0.787	2.198***
70-74	0.545	1.724**	0.723	2.061***	0.817	2.264***
75-79	0.205	1.227	0.568	1.765**	0.335	1.398*
지역(기준=비농가)						
농가	0.092	1.097	0.026	1.027	0.171	1.186
교육수준(기준=대학이상)						
무학	0.473	1.605	-0.343	0.710	0.604	1.829*
초등	0.507	1.661	-0.164	0.848	0.527	1.694*
중고등	0.320	1.377	0.132	1.140	0.560	1.751*
배우자(기준=유배우)						
무배우	-0.137	1.147	-0.477	0.621***	0.172	1.188***
미취학자녀(기준=없음)						
있음	1.635	5.130	-0.193	0.824	1.347	3.847
경제활동(기준=경제활동 안함)						
일함	4.461	86.542***	0.772	2.165***	0.612	1.844***
chi-square	2097.070***					
d.f.	33					
n	3144					

주: 1) * p<0.10, ** p<0.05, *** p<0.01

〈부표 2-2〉 노후생활유형 결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계속)

변수	경제활동 vs 가정관리 (기준 = 가정관리)		가정관리 vs 가족보살피기 (기준 = 가정관리)		경제활동 vs 가족보살피기 (기준=가족 보살 피기)	
	b	exp(b)	b	exp(b)	b	exp(b)
상수	-3.657		-1.493		-2.164	
성별(기준=여성)						
남성	2.143	8.523***	2.073	7.946***	0.070	1.073
연령(기준=80세이상)						
65-69	0.231	1.260	-0.015	0.985	0.246	1.279
70-74	-0.178	0.837	0.094	2.099	-0.272	0.761
75-79	-0.364	0.695	-0.233	0.792	-0.130	0.878
지역(기준=비농가)						
농가	0.066	1.068	0.145	1.156	-0.079	0.924
교육수준(기준=대학이상)						
무학	0.816	2.262*	0.947	2.577**	-0.131	0.877
초등	0.672	1.958	0.691	1.997	-0.020	0.980
중고등	0.188	1.207	0.429	1.536	-0.241	0.786
배우자(기준=유배우)						
무배우	0.614	1.848***	0.649	1.914***	-0.035	0.966
미취학자녀(기준=없음)						
있음	1.828	6.222	1.540	4.666	0.288	1.333
경제활동(기준=경제활동 안함)						
일함	3.688	39.980***	-0.160	0.852	3.849	46.938***
chi-square	2097.070***					
d.f.	33					
n	3144					

주: 1) * p<0.10, ** p<0.05, *** p<0.0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사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2,000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7,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노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5,000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